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Magazine

Ballantine's 2nd. vol.

Ballantine's

2nd. vol. Ballantine's Magazine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그들의 헤리티지
Ballantine's & Cartier

Undiscovered Nature of Scotland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출시

Ballantine's KPGA Award 2011
한국프로골프 대상 시상식 현장에 가다

작은 인식의 전환이 이끄는 큰 변화
Tasting First Culture

Global Art & Culture Trend



Ballantine's

BLENDED SCOTCH WHISKY

SIGNATURE DISTILLERY

Limited Edition

SCAPA IS ONE OF THE ICONIC DISTILLERIES
BALLANTINE'S

SCAPA
AGED 17 YEARS

Geo. Ballantine

BLENDED & BOTTLED BY GEORGE BALLANTINE & SONS
DISTILLERS DUMBARTON SCOTLAND

The Exceptionally Smooth

A UNIQUE BLEND CREATED
CELEBRATING THE DISTINCTIVE FLAVOURS



And Elegance

BY OUR MASTER BLENDERS
PROVIDED BY OUR SIGNATURE

PRODUCT OF SCOTLAND

스카파의 하늘, 그리고 시.

발렌타인 17년이 한 편의 시로 다가오다.

하늘이 선사하는 자연 그대로의 고귀한 순수함을 블렌딩하다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UNDISCOVERED NATURE OF SCOTLAND

George Ballantine's Entrepreneurial Spirit

200여 년을 이어 온
품격과 명성, 그 원동력



미래를 내다보는 'Visionary'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최고의 명품 스카치 위스키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발렌타인. 이 품격 높은 브랜드의 역사는 1827년, 발렌타인의 창시자이자 첫 번째 마스터 블렌더 '조지 발렌타인(George Ballantine)'으로부터 펼쳐진다.

조지 발렌타인은 작은 아이디어를 큰 기회로 변화시킨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표본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무한한 영감을 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조지 발렌타인이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Visionary), 일관성 있게 시대를 넘어 이어오고 있는 장인정신(Craftsmanship),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선구자(Pioneer)로서의 역할을 송고하게 지켜온 덕분일 것이다.

Visionary
Craftsmanship
Pioneer
Geo Ballantine

시대를 넘어 이어오는 'Craftsmanship'

조지 발렌타인은 한 분야에 매진해 그 분야에서 권도에 오른 인물이라는 점에서 장인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조지 발렌타인의 선견력이 발렌타인을 탄생시켰다면, 그와 그에서 이어지는 마스터 블렌더들의 송고한 장인정신은 200여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오늘날의 발렌타인을 있게 했다.

블렌디드 위스키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일관성 있는 맛과 향을 대대로 유지하고자 했던 그 집념과도 같은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은 조지 발렌타인을 포함해 발렌타인 역사상 단 5명뿐이다. 마스터 블렌더로 불리는 이들은 시대를 초월한 발렌타인 위스키 고유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블렌딩 비법을 전수 받은 유일한 사람으로, 그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발렌타인의 살아있는 수호자다.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열정,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위스키가 술잔에 담겨 완벽하고 일관된 맛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헌신과 끈기로 지켜보아야 하는 마스터 블렌더. 선대 마스터 블렌더 조지 발렌타인의 장인정신과 발렌타인 위스키만의 비법은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해져 변하지 않는 발렌타인의 예술적 블렌딩을 유지하는 기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고를 지향하는 'Pioneer'

조지 발렌타인은 남들과는 좀 더 다른 생각과 시선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선구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자세는 프리스티지 블렌디드 위스키 시장을 개척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켈소에서 위스키 제조를 시작한 후, 발렌타인은 200여 년간 다양한 연산의 제품을 제공하면서 남다른 입지를 구축했다.

또한 조지 발렌타인은 자신만의 제품과 브랜드에 차별화된 마케팅을 시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조지 발렌타인과 그의 아들은 사우스 브리지의 School of Arts, 켈소의 Market Square, Egyptian Building 옆의 100 Union Street 등 상징적인 건물을 선택하여 상점을 개설하는 등 차별화된 방식을 추구했다. 이러한 사고는 200여 년 동안 브랜드의 기초가 되어 남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시켰다.

또한 발렌타인은 기업가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골프와 스카치 위스키를 블렌딩함으로써 골프에 비즈니스 마인드를 적용하고 이를 세계적인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스코틀랜드의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유산이 조지 발렌타인에 의해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다.



Contents

- 08. HERITAGE
- 14. LIFESTYLE
- 26. INNOVATION
- 54. ART OF BLENDING
- 64. BALLANTINE'S PICK

Ballantine's[®]

2nd. vol. Ballantine's Magazine





Journey to Ballantine's

변하지 않는 가치의 위대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유행과는 상관없이 꾸준히 사랑받는 명작을 만나는 지금.

Heritage of Ballantine's & Cart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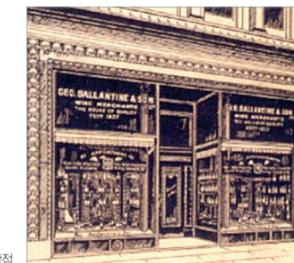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그들의 공통된 헤리티지 발렌타인 & 까르띠에

세계적 명성의 명품 브랜드 발렌타인과 까르띠에. 변하지 않는 제품의 가치로 예술적인 경지에 오른 두 브랜드도 시작은 작은 상점에 불과했다. 19세기, 세상에 빛을 본 이후 200년에 가까운 세월 속에서 쌓아 올린 위대한 유산. 그것은 누구도 쉽게 흉내 내거나 모방할 수 없는 브랜드 고유의 것, 불변의 헤리티지다.

19세기 작은 상점에서 시작된 헤리티지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조지 발렌타인'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서 위스키 도제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어린 소년이 훗날 가장 사랑받는 고연산 위스키 탄생의 선구자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지 발렌타인의 천부적인 사업가 기질과 5년의 견습 기간 동안 쌓은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진정성 있게 한길을 고집하는 열정은 1827년 자신의 이름을 건 조그만 식료품점이 문을 열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위스키에 대한 끝없는 탐구와 열망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향이 거친 위스키를 좀 더 부드럽게 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낳았고, 그것은 곧 고연산 위스키 탄생의 시초가 되었다. 처음에는 위스키를 오래 숙성시켜 블렌딩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지는 못했지만, 조지 발렌타인의 선견력과 차별화된 사고, 투철한 장인정신은 오늘날 폭넓게 사랑받는 위스키 브랜드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1827년, 조지 발렌타인의 최초의 상점

까르띠에 역시 19세기인 1847년 당시 28세였던 보석 숙련공 '루이 프랑소와 까르띠에'가 프랑스 보석 명장으로 이름을 떨치던 아돌프로부터 그의 보석 아틀리에를 인수하면서 브랜드 역사의 첫 장을 열었다.

루이 프랑소와 까르띠에의 손자, 루이 조제프 까르띠에는 보석과 장신구를 다루며 터득한 노하우를 시계 산업에도 접목해 성공했다. 까르띠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타고난 심미안으로 손목시계가 시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했으며, 1904년에는 친구인 브라질 비행사 '알베르토 산토스-뒤몽'이 비행 중에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죽 스트랩 디자인을 고안한 최초의 현대식 손목시계를 만들어 선사했다. 현재까지도 전설을 이어가고 있는 '산토스 드 까르띠에'의 시작이었다.



까르띠에 파인워치 컬렉션 최초로 멀티 타임존 기능을 갖춘 9909 MC Calibre de Cartier multi-timezone

왕실에서 시작된 국제적인 명성과 영광

1895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위치한 스코티쉬 산을 등반하고 돌아오던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이 지역에 기존 몰트 위스키와는 다르게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지닌 위스키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조지의 가게를 방문한다. 발렌타인 위스키의 부드럽고 조화로운 맛과 향에 감동을 받은 빅토리아 여왕은 왕실의 공인 인증서인 '로얄 워런트(Royal Warrant)'를 수여했다. 이는 곧 20세기에 다가올 발렌타인의 국제적인 성장과 명성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1938년에는 스코틀랜드 왕립 문장원에서 '그랜트 오브 헤럴딕 암즈(Grant of Heraldic Arms)' 문장을 수여하면서 발렌타인을 '스코틀랜드 귀족 사회의 품격 있는 브랜드'로 인정하기도 했다.

일찍이 영국의 '에드워드 7세'로부터 '왕의 보석상, 보석상 중의 왕'이라는 칭송을 받은 까르띠에도 왕실에 인정을 받으면서 그 명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루이 까르띠에는 1938년 영국 왕실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아름다운 손목시계를 선물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아름다움과 품격에 감동을 하게 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은 까르띠에 시계는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발렌타인의 성장과 명성을 예고한 왕실의 공인 인증서, 로얄 워런트”



발렌타인에 수여한 왕실의 공인 인증서 '로얄 워런트'

- 1 발렌타인 위스키를 인정하고 왕실 공인 인증서를 수여한 빅토리아 여왕
- 2 까르띠에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개발한 9452MC 칼리버



1



2

200 Years of Glory

발렌타인과 까르띠에의 위대한 발자취 - 불변의 가치를 낳은 영광의 순간들

Ballantine's

- 1810** **글렌버기 증류소, 위대한 역사의 시작**
스코틀랜드의 심장부 스페이사이드 지역에 글렌버기 증류소가 문을 열었다.
- 1827** **발렌타인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린다**
발렌타인의 설립자 조지 발렌타인이 19세의 나이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첫 상점을 열고 글렌버기 증류소에서 만들어 낸 위스키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 1895** **왕실이 보증한 위스키**
빅토리아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조지 발렌타인에게 왕족 칭호를 내리고, '로얄 워런트(Royal Warrant)'를 수여했다.
- 1930** **발렌타인, 마스터피스를 발표하다**
'발렌타인 17년(Ballantine's 17YO)'이 출시됐다. 복합적이면서도 조화로운 맛의 이 위스키는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 1938** **문장원에서 선사한 영광의 상징**
스코틀랜드 문장원이 조지 발렌타인 & 패밀리에 '그랜트 오브 헤럴딕 암즈(Grant of Heraldic Arms)' 문장을 수여했다.
- 1989**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위스키**
발렌타인 17년이 최고급 위스키로서 국내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이끌기 시작했다.
- 2008** **발렌타인 챔피언십, 국내 골프의 역사를 새롭게 쓰다**
총 상금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의 유러피안 투어, 글로벌 스케일의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국내 골프의 품격을 높였다.
- 2011** **두 번째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 출시**
2010년, 발렌타인 역사상 처음 선보인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200주년 스페셜 에디션'에 이어, 두 번째 에디션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선보였다.
- NOW** **발렌타인의 현재**
국제 주류 품평회 IWSC로부터 최고상인 '골드 베스트 인 클래스(Gold Best in Class)'를 수상한 것을 비롯, 지난 10년간 60여 회 이상 수상하며 최고의 위스키로 인정받고 있다.

Cartier

- 1847** **까르띠에 하우스의 탄생**
루이 프랑수아 까르띠에가 파리 몽토르귀(Montorgueil)가 29번지에 위치한 그의 스승 아돌프(Adolphe Picard)의 보석 아틀리에를 이어받았다.
- 1888** **손목시계에서 미래를 보다**
여성을 위한 최초의 주얼리 손목시계가 탄생했다. 이는 시계산업의 현대적 발전을 상징하는 작품이다.
- 1899** **국제적 도약의 발판을 갖추다**
뤼 드 라 뷘(Rue de la Paix) 13번지에 자리를 잡으면서 마침내 까르띠에는 까르띠에의 정신과 어울리는 걸모습을 갖추게 된다. 루이 까르띠에는 그의 세 아들에게 까르띠에 하우스의 해외 경영을 맡기기 시작했다.
- 1904** **시계 산업의 진일보를 이끈 스토리**
까르띠에가 에드워드 7세의 공식 주얼리로서 최초의 왕실 지정 상인(Royal Warrant) 자격을 수여 받았다. 또 루이 까르띠에는 그의 친구인 브라질 비행사 알베르토 산토스-뒤몽(Alberto Santos-Dumont)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가죽 스트랩의 손목시계를 만들어 선사했다.
- 1923** **당대 최고 시계 전문가들과의 합작품**
최고의 예술미와 기술이 조화를 이룬 첫 번째 포르티코 미스터리 클락(Portique mystery clock)을 제작, 특허권을 따냈다.
- 1938** **워치메이커로서의 지속적인 성공**
까르띠에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손목시계를 영국의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선사하면서 그 명성을 더욱 높였다.
- NOW** **까르띠에의 현재**
주얼리 메이킹을 예술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넓혀 왔으며, 2008년에는 전 세계 유수의 브랜드만이 소유한 '제네바 실(Geneva Seal)'을 획득하며 파인 워치메이킹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펼치고 있다.

세기를 넘어 지켜온 헤리티지 '아트 오브 블렌딩'

두 브랜드만이 가지는 독창성과 희소성은 단 하나의 제품에도 '퍼펙트 밸런스'를 실현해 내고자 하는 장인정신을 반영하는 브랜드 철학에서 비롯된다. 제품의 영역을 예술 장르 까지 넓힌 창조자로서 이들이 만들어 낸 명작들을 보면 그 제품들이 곧 브랜드의 역사 이자 장인의 숨결이 깃든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창조자로서의 까르띠에는 주얼리 메이킹을 예술의 영역으로까지 넓혔다.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시계 모델들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심플하지만 스타일리시한 미학과 기하학적이지만 부드럽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렇지만 까르띠에가 그저 아름답지만 한 시계는 아니다. 까르띠에 시계는 대부분 왕실 과 귀족, 대부호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디자이너, 시계 기술자, 감정 사, 세공 전문가, 광학 전문가들의 손과 최상의 소재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엄격한 소재 선택과 완벽한 세공, 제조 기술은 지금까지도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그 속 에서 느껴지는 장인정신과 워치메이킹에 대한 애정은 현대적인 감각과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 까르띠에 고유의 독창성을 뽐내낸다.

까르띠에는 또한 지난 2008년 전 세계 유수의 브랜드만이 소유한 '제네바 실(Geneva Seal)'을 획득하며 파인 워치메이킹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펼치고 있다. 제네바 실 (Geneva Seal) 인증의 수많은 부품들은 그 하나하나로도 훌륭하지만, 그것들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하나를 이룰 때 명품 무브먼트 까르띠에를 비로소 완성시킨다. 그것은 절 대로 기계로 만들어질 수 없는, 예술의 경지에 이른 '블렌딩'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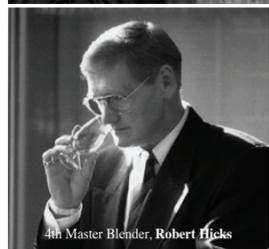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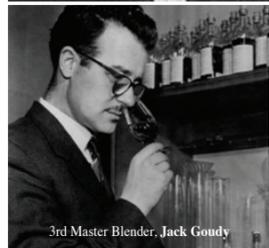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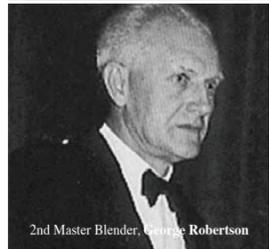
“변하지 않는 가치로 영원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발렌타인의 위대한 유산,”

발렌타인에 있어 '블렌딩'이란 단순히 위스키를 정확한 비율에 의해 섞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 각기 다른 30여 곳의 증류소에서 만들어진 최상급의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 스키가 마스터 블렌더의 오감을 통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위스키를 제조할 때 어느 부분도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질 좋은 재료를 선 별하고 싹을 틔우는 몰팅 과정, 발효, 증류, 숙성 등 모든 과정에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 요하다. 장인정신을 가진 명장의 정성은 스카치 위스키에 스며들어 그 가치를 더한다. 특히 발렌타인 위스키 고유의 맛과 향,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그 변하지 않는 가치 를 대를 이어 전수하는 숭고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오직 단 한 명의 마스터 블렌더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마스터 블렌더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퍼펙트 밸런스를 유지하여 10년 전에 블렌딩된 발렌타인과 오늘 블렌딩한 발렌타인이 동일한 맛과 향을 낼 수 있도록 제조 과정의 모든 단계를 일관되게 관리하고 책임진다. 그들은 방금 수확된 원료의 품질 테 스트에서부터 길게는 수십 년에 걸친 위스키의 증류, 숙성, 블렌딩 과정을 헌신과 끈기 로 지켜보아야 하며, 약 1,000가지의 향을 구별해 내는 천재적인 능력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향을 맡는 것만으로 각각의 원액을 구분해 낸다.

이렇듯 약 200여 년 동안 발렌타인만의 불변하는 시그니처 스타일을 만들어 내고, 블 렌딩을 아트로 승화시키는 숭고한 작업을 지속해 온 마스터 블렌더는 발렌타인의 설립 자이자 1대 마스터 블렌더인 '조지 발렌타인'부터 현재의 '샌디 히슬롭'에 이르기까지 단 5명에 불과하다. 발렌타인을 천재들의 장인정신이 만든 '아트 오브 블렌딩'이라고 일컫 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변하지 않는 가치로 영원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발렌타인 의 '아트 오브 블렌딩'은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장인정신의 결정체이자 위스키 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증거가 아닐까.



Master Blender



1 까르띠에의 시계 장인
2 발렌타인의 5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

2

L i f e s t y l e

Leave an Impression

스코틀랜드가 세상에 선물한 가장 큰 두 가지 유산은 발렌타인 위스키와 골프임에 틀림없다.
이 둘의 환상적인 조화는 세계적 권위의 발렌타인 챔피언십과 KPGA 대상 시상식에서 이어진다.



2011 챔피언십 블렌드



Ballantine's 15 | LIFESTYLE

Ballantine's Championship

발렌타인과 골프의 위대한 만남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렌타인과 골프는 명작과 명경기를 위한 헌신과 열정, 예술에 가까운 완벽한 솜씨를 요한다는 점에서 많은 가치를 공유한다. 특히 발렌타인은 위스키에서, 골프는 스포츠에서 각각 상징적인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발렌타인의 스타일과 세련미는 골프의 도전, 기술과 함께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발렌타인과 골프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발렌타인은 2008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개최하고 있다. 세계적인 유러피언 챔피언십을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한국의 젊은 골프 선수들에게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견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한국 골프에 공헌하고자 하는 발렌타인의 노력이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2011년부터 경기도 이천의 블랙스톤 GC로 자리를 옮기면서 가장 품격 있는 골프대회 중 하나로 발돋움하고 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 고유의 전통

발렌타인 챔피언십 기간 동안 멋진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발렌타인은 매일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한 선수에게 발렌타인 21년을, 17번 파4홀에서 버디를 잡은 선수에게는 발렌타인 17년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특히 스코틀랜드 전통 술잔인 퀘이크(Quich)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우승 트로피는 발렌타인의 오랜 전통을 상징하는 동시에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우승자에게 헌사되는 최고의 선물이다.

또한 매 대회 우승자에게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리미티드 에디션 '챔피언십 블렌드'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챔피언십 블렌드'는 매 대회 우승자와 발렌타인의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의 완벽한 협업을 통해 탄생하는 제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진귀하고 특별한 위스키다. 한 병은 우승자에게 수여되며, 다른 한 병은 오프닝 갈라에서 경매에 부쳐져 수익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부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Great Minds Leave Great Impressions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남긴 감동

1960년 영국의 명문 골프 클럽 웬트워스에서 열린 발렌타인 토너먼트 대회를 시작으로 발렌타인과 골프는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 만남이 골프와 스카치 위스키의 진정한 고향인 스코틀랜드에서부터 떠오르는 골프 국가인 한국으로 이어진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명성 높은 국제 골프대회에 또 하나의 기준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유러피안 투어, 아시안 투어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에서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은 열정과 투혼으로 골프 팬들에게 매년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2008

국내 최초 월드 클래스 골프대회, 그 서막을 열다

2008년 3월, 그림같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 핀크스 골프클럽에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유러피안 투어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골프대회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화려한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국내 골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8년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2008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그 시작부터 화려했다. 총 상금 290만 달러 규모의 이 대회에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 최경주 외에도 파드리그 해링턴, 콜린 몽고메리, 앤서니 킴, 랑웬 총 등 최정상급 스타 플레이어가 참가해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 대회는 세계 40여 개국에 생중계되며 전 세계에 제주를 알리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제주의 변화무쌍한 바람이 변수라고 여겨졌던 2008 발렌타인 챔피언십 초대 우승자의 영예는 3번에 걸친 연장홀 명승부 끝에 지브 밀카 싱을 제친 그레엄 맥도웰에게 돌아갔다. 우승자인 그레엄 맥도웰은 우승 상금과 스코틀랜드에서 전통적으로 위스키를 마실 때 쓰는 술잔인 '퀘익'을 본뜬 순은제 트로피 외에도 첫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단 8명만 생산된 '발렌타인 40년산' 중 한 병을 품에 안아 화제를 낳았다.

1 그레엄 맥도웰의 우승의 순간 2 우승 트로피 3 2008년 대회 우승자, 그레엄 맥도웰



2009

신예 스타 통차이,
글로벌 스타로 도약하다

어니 엘스를 비롯, 헨릭 스텐손, 프레드 커플스, 콜린 몽고메리 등이 참가하면서 별들의 향연이 이어진 2009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결과를 좌우한 것도 제주의 강한 바람이었다. 고전하는 선수들 가운데서 침착한 연장 버디 퍼트로 우승을 차지한 태국의 골프 영웅 통차이 자이디는 “연장전에서 티샷을 맨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이 행운이었다”며 “다른 선수의 플레이를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승 비결을 밝히기도 했다.

통차이 자이디는 우승 상금 33만 유로와 함께 처음 선보이는 아주 특별한 '2009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부상으로 수여받았다. 제2회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2009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는 발렌타인의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과 2008년 우승자이자 위스키 애호가인 그래엄 맥도웰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했으며, 발렌타인이 처음 출시하는 35년산 위스키이자 전문가 외에 외부인이 마스터 블렌더와 협업하여 만든 최초의 위스키로서 그 가치를 더했다. 히슬롭이 엄선한 가장 우수하고 귀중한 위스키에 맥도웰의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한 라이트하고 부드러운 맛의 이 위스키는 단 15병만 한정 생산되었다.



2010

돌아온 제왕 프레이저,
깊은 인상을 남기다

개최 이래 처음으로 연장전 없이 치러진 제3회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상적인 피날레를 만들었다. 7년간의 침체기와 극심한 슬럼프로 선수 생활을 포기할 뻔 했던 마커스 프레이저가 이룬 값진 우승 때문이었다. 프레이저 본인을 포함해 모두를 놀라게 한 이 결과는 놀랍게도 1라운드부터 파이널 라운드까지 줄곧 안정적인 선두를 지키며 거둔 우승이었다. 어니 엘스, 앤서니 김, 헨릭 스텐손과 같은 유명 선수들을 포함한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이 무명의 31살 호주 선수의 뒤를 따랐다.

'2010 발렌타인 챔피언십' 개최를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20병만 한정 생산된 '2010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 36년'이 공개되기도 했다. '2010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 36년'은 1960년에 처음 치러진 발렌타인 골프 토너먼트의 50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같은 해에 만들어진 원액만을 사용한 스페셜 에디션. 이 중 한 병은 우승자 마커스 프레이저에게 수여되었으며 한 병은 경매를 통해 당시 천안함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성금으로 기탁되었다.



2011

리 웨스트우드,
대회 우승과 함께 세계 1위 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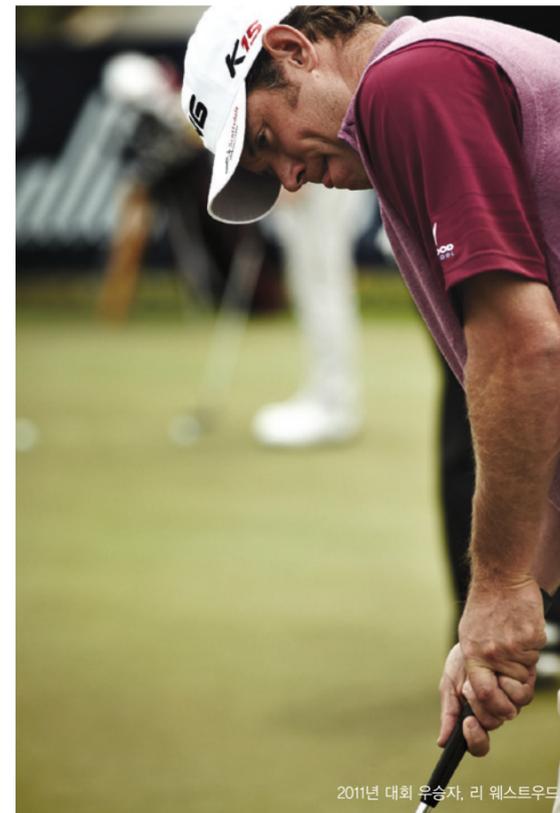
2011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세계 1위 선수가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한 대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리 웨스트우드는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스페인 출신의 베테랑 미구엘 앙헬 히메네즈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왜 그가 세계 랭킹 1위인지를 보여주었다. 한국 프로투어 선수인 박상현 프로 역시 10 언더파로 단독 3위에 오르면서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찾아준 홈 팬들을 기쁘게 했다.

이번 대회는 장소를 바꿔 서울 인근의 블랙스톤 GC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27홀 챔피언십 골프 코스와 그 중심에 있는 멋진 클럽 하우스를 자랑하는 블랙스톤 GC는 국내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세련된 세계적인 수준의 골프클럽으로, 다양한 전략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코스와 수려한 경관으로 찬사를 받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그 규모와 질적인 면 모두에서 국내 골프 저변을 확대하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발렌타인 챔피언십만의 특별한 전통 또한 계속해서 이어졌다. 전년도 우승자 마커스 프레이저와 샌디 히슬롭의 협업으로 탄생한 2011 챔피언십 블렌드 역시 최소 38년 이상 숙성된 희소성 높은 원액으로만 블렌딩되었으며, 전 세계 10병만 한정 생산되었다. 마커스 프레이저는 샌디 히슬롭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연산의 발렌타인 위스키를 모두 시음한 후, 발렌타인의 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만의 취향을 더해 진한 과일향과 크리미한 풍미가 끝없는 여운을 남기는 위스키 블렌딩을 탄생시켰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1위 우승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쁩니다.
가능하면 세계 곳곳에서 경기를 하고 많은 우승을 하고 싶은데 그런 점에서 이번 발렌타인 챔피언십에서의 우승은 의미가 있습니다.”

리 웨스트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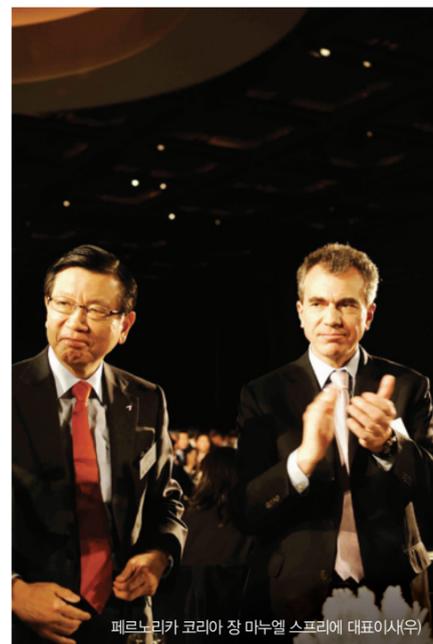
Ballantine's KPGA Award 2011

한국프로골프 대상 시상식 현장에 가다

한국 남자골프의 한 시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발렌타인 한국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15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 발렌타인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5백여 명의 축하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열기로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그 설레는 현장과 수상 선수들의 감격의 순간을 담았다.

올해도 한국프로골프(KPGA) 대상 시상식이 큰 호응과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열리는 한국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은 한 시즌 동안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선수들을 선발해 신인왕, 상금왕, 대상 등 다양한 상을 수여하는 중요한 자리다. 발렌타인은 한국 골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년 이 행사를 후원해 오고 있다.

한국골프협회정회원들과 골프용품 회사 및 골프업계 관계자를 비롯, 수상 선수와 그 가족들, 취재진들을 한 자리에 초청하여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한국프로골프협회 박삼구 회장의 인사말과 페르노리카 코리아 장 마누엘 스프리에 대표이사와의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차관의 축사로 시작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장 마누엘 스프리에 대표이사(우)



1 이날의 수상자들 2 페르노리카 코리아 장 마누엘 스프리에 대표이사의 축사
3 공로상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다 4 수상 중인 선수들

1부에서는 KGT 코리아 투어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주어지는 감사패와 공로상 시상식에 이어, 한국 골프의 미래를 짊어질 스포츠 토토 아마추어상이 고등부 이상엽과 중등부 김재우에게 주어졌다. 우수 지도자상은 박영민, 명출상은 존해(21·정관장)가 각각 수상하면서 시상식 분위기가 점차 고조된 가운데 발렌타인 17이 결들여진 디너가 제공되었다.

2011 코리아 투어를 결산하는 오프닝 영상과 함께 시작된 2부에서는 올해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위한 시상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장타상에는 김대현(24·하이트맥주), 베스트샷상은 박상현(28·앙드레김골프), 기자자동차 KPGA 신인상인 장려상은 지난해 한국프로골프투어 동부화재 프로미오픈 준우승자인 이동민(27)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어 우수 선수상은 김종덕(50·나노스울), 정준영(25), 서정민(20), 송영한(20)이 수상했다. 장타상에 이어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골퍼인 연덕춘을 기념하는 상이자 최저타수를 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덕춘상을 함께 수상한 김대현은 2관왕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Leave an Impression상은 올해 가장 인상 깊은 활약을 보여준 김병준(29·타이틀리스트)에게 주어졌으며, 발렌타인 상금왕 수상은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 타이틀리스트), 해외 특별상은 배상문(25·우리투자증권), 마지막으로 발렌타인 대상에는 홍순상(30·SK telecom)이 호명되면서 생애 첫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발렌타인 한국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는 매해 선수들이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시간이 마련된다. 올해는 김병준이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트러블 메이커' 공연을 통해 프로 못지 않은 댄스 실력을 보여주며 시상식 분위기를 한층 더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한편 박삼구 한국프로골프협회장은 이번 시상식을 끝으로 협회장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KPGA를 위해 노력해 온 박 회장을 위해 회원 대표로 배상문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재임 중 모든 회원의 노력으로 코리아 투어가 크게 성장했다"며 "골프인들이 합심해 2015년 프레지던트컵도 성공적으로 치러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발렌타인 대상 흥순상

발렌타인 2011 한국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올 시즌 2승을 기록한 흥순상이 생애 첫 대상을 받았다.

“유럽투어 최종전 출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일정이 안 맞아 시상식에 불참하게 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받게 되어서 기쁘고 코리아 투어 덕에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회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럽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발렌타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금왕 김경태

김경태는 올 시즌 5개 대회만 출전하고도 상금 4억 5177만 원을 획득하여 상금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태국 골프대회 출전 때문에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Leave an Impression상

김병준은 메이저 골프 대회인 제54회 대신증권 KPGA 챔피언십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그동안 대회에 15차례 나오면서 컷을 통과한 것은 네 번밖에 되지 않는 무명 선수가 국내 메이저 대회에서 처음 들어올리는 트로피였다.

“오늘 특별히 보여드린 공연이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나 다행이에요. 사실 제가 몸치인데, 몇 날 며칠간 계속해서 연습한 데다 오늘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와주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하. 그리고 이런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음 우승 때는 울지 않고 매년 우승한 듯이 유연하게 행동할 겁니다. 오랜 무명시절을 함께한 와이프 또한 저의 우승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이 상을 받게 해준 여러 관계자와 발렌타인 측에도 감사드리며, 내년엔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준



베스트샷상

베스트샷상을 수상한 박상현 선수는 수상의 감사함과 더불어 내년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상현은 지난 5월 발렌타인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 18번홀(파5)에서 8m짜리 퍼트를 성공. 이글을 잡아 국내 선수로는 최고 성적인 3위로 선전하며 대회를 마쳤다.

“좋은 샷을 날리는 건 모든 골퍼선수들의 바람이죠. 그래서 오늘 그 어떤 상보다도 ‘베스트샷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시상식 시즌이 시작되면 항상 드는 생각은 ‘아 시합이 드디어 끝났구나, 내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예요. 선수로서는 당연한 거겠지만 저에게 이 시간이 내년을 준비하는 다짐의 시간인가 봅니다. 좋은 상을 주신 발렌타인 측에도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훈련하고 1승을 먼저 따낼 계획입니다!”

박상현

해외 특별상

지난 16일 일본 지바현의 다카노다이 컨트리클럽에서 시즌 3승째를 거둔 배상문. 한국 선수가 일본 오픈에서 우승한 것은 1941년 연덕춘, 1972년 한장상, 지난해 김경태에 이어 배상문이 네 번째다. 배상문은 세계 6대 투어 중 하나인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총 상금 1억 5100만 엔(약 22억 7000만 원)을 획득해 상금왕에 올랐다.

“우선 올 한 해는 저에게 그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도 시즌 초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골프라이터스협회(KGWA)가 수상하는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고 발렌타인 챔피언십 홍보대사까지 되어 꿈에 그리던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저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10주 연속으로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달 말 미국 하와이로 떠나 다음 시즌 준비에 열중할 예정인데, 초반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활동 기대해 주세요.”



배상문



장타상 / 덕춘상

2011 한국프로골프 시상식에서 장타상과 덕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한 김대현 선수. 수상의 설렘으로 몸시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소감을 말했다.

“장타상과 덕춘상을 함께 수상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큰 시상식에서 상을 두 번이나 받는다는 건 선수로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타왕의 경우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뜻밖에 좋은 결과를 얻어 더욱 기쁩니다. 두 가지 상 모두 감사하고 기쁜 상이지만 굳이 하나만 꼽으라고 하신다면 장타상을 고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장타자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장타상에 좀 더 욕심이 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고 멋진 시상식을 마련해 주신 발렌타인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오늘 이후 저는 더욱 한걸음 나아가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이 주는 의미는 꽤 크거든요.”

김대현

스카파의 바람, 그리고 시.

발렌타인 17년이 한 편의 시로 다가오다.

바람이 전해 오는 스카파 고유의 부드럽고도 풍부한 향을 신다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UNDISCOVERED NATURE OF SCOTLAND

3

I n n o v a t i o n

Explore Ballantine's Innovation

순수하면서도 비밀스러운 한 편의 시와도 같은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이 새로운 명작에는 스코틀랜드 미지의 자연과 블렌딩의 미학,
그리고 잊고 있었던 당신 삶의 숨은 가치가 녹아 있다.



Undiscovered Nature of Scotland

순수하고 신비로운 미지의 자연을 디스커버하다
스코틀랜드, 그 새로운 발견



발렌타인은 스코틀랜드의 4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각 시그니처 디스틸러리에서 엄선한 원액들로 조화롭게 블렌딩된다. 각 지역의 원액은 기후와 지형의 특성에 따라 그 맛과 향이 좌우되는데 하이랜드, 로우랜드, 아일레이, 스페이사이드 이 네 지역은 발렌타인 특유의 세련된 맛과 향, 그리고 스타일을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 중 한 곳인 하이랜드 지역 안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스카파 지역은 로맨틱하고 이국적인 정취의 자연환경과 환상적인 백사장으로 스코틀랜드를 찾는 여행자들이나 보트 애호가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담아 지난 11월 새롭게 출시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글렌버기 증류소 200주년 기념으로 탄생한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에디션'에 이은 두 번째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이다. 발렌타인 17년 본연의 우아하고 균형 잡힌 부드러움에 풍부한 과일의 맛과 환상적인 꽃향기가 반영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발렌타인 애호가들에게도 또 다른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다양한 지식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인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도 충분한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탐구욕과 열정을 한층 더 배가시켜 줄 전망이다.

스카파의 하늘, 바람, 별 그리고 시. 발렌타인 17년이 한 편의 시로 다가오다.



“미지의 자연, 스카파 지역에서 독특하면서도 숙련된 발렌타인만의
노하우로 탄생한 이번 에디션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위스키 소비자들에게
유니크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 -

‘블렌딩의 미학’으로 칭송받는 발렌타인, 그 맛과 향의 중심에는 스카파 증류소가 있다.
그 스카파 스타일을 가득 담아 탄생된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의 두 번째 시리즈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북해와 맞닿은 스코틀랜드 북쪽 끝, 접근이 어려워 미지의 세계로 불리는 스카파 해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 더욱 순수하고 비밀스러운 이 곳에 스카파 증류소가 자리잡고 있다.
유명한 위스키 평론가 알프레드 버나드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완벽한 증류소 중 하나’라고 평가한 바로 이곳에서
발렌타인 17년의 새로운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이 시작된다.

스카파 증류소는 1885년 이후 현재까지 전통의 제조법으로 소량의 원액만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피팅 과정을 생략하고 독특한 모양의 로몬드 증류기를 사용하는 차별화된 제조 과정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스카파 증류소만의 특색으로 이번 에디션 감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Art of Blending’을 실현하며 우아하고 균형잡힌 부드러움으로 위스키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발렌타인 17년.
그 명성과 역사를 이어가게 될 ‘발렌타인 17 스카파(Scapa) 에디션’을 통해
블렌딩의 미학과 스코틀랜드의 미지의 자연을 디스커버 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다.

스카파의 하늘, 바람, 별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한 편의 시, 스카파(Scapa).
발렌타인 17년에서 시작되어 글렌버기를 거쳐 스카파로 이어지는 발렌타인의 감미로운 여행을 떠나보자.



About SCAPA Distillery

가장 완벽한 증류소 - 스카파 증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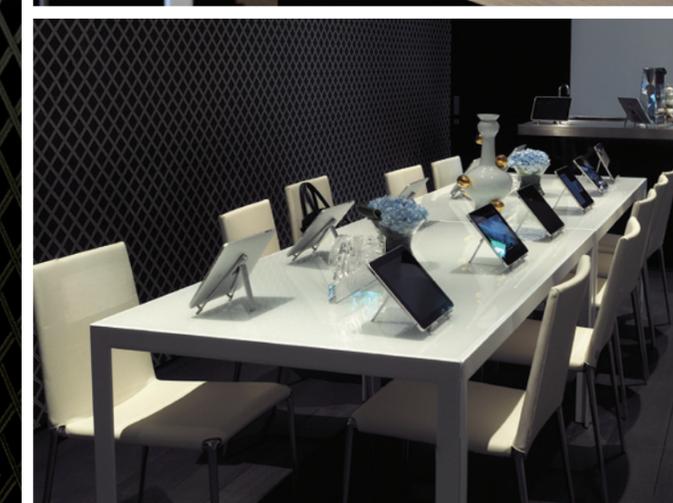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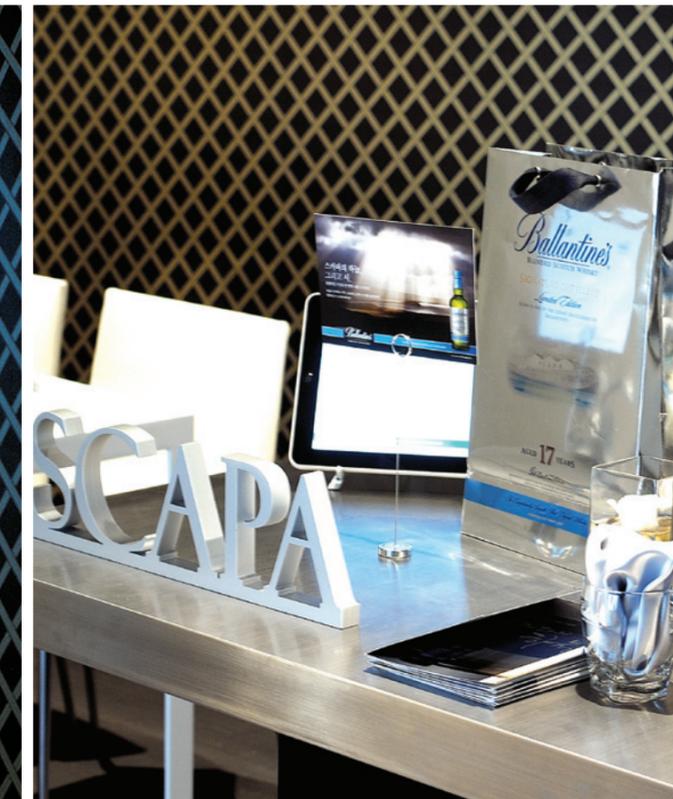
블렌딩의 미학으로 칭송받는 발렌타인, 그 맛과 향의 중심에는 스카파 증류소가 있다. 이 미지의 자연에 위치한 스카파 증류소는 발렌타인 17년의 부드러운 맛의 근원지이기도 하다. 1885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도 소량의 원액만을 엄선하고 피트 없이 피트의 맛을 내게 하는 마법의 증류법과 전통적인 모양 그대로의 포트 스틸을 유지해 오고 있어, 발렌타인 17년 스카파 에디션에 미지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유명한 위스키 평론가 알프레드 버나드는 1886년 스카파 증류소를 방문하여 ‘영국에서 가장 완벽한 증류소 중의 하나’로 평가하기도 했다.

Ballantine's 17 Scapa Brand Concept Room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는 특별한 경험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런칭을 기념하여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한국을 대표하는 캘리그래피 작가 이상현과 아티스트 3인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컨셉을 하나의 공간으로 창조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컨셉룸을 지난 12월 2일 명동 남산 스테이트 타워에서 선보였다. 한국의 미와 발렌타인의 예술적 블렌딩의 조화가 돋보이는 이번 컨셉룸은 스코틀랜드 스카파 지역에서 탄생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하늘, 바람, 별 그리고 시가 함께하는 3가지 컨셉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아트와 브랜드의 만남을 신개념 컨셉룸으로 탄생시킨 이번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런칭 행사는 캘리그래피, 모션그래픽, 한지조명, 화예 등 다양한 분야가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하늘, 바람, 별 그리고 시와 어우러져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감동을 안겨 주었다.



| 하늘의 공간 | 이상현, 문정수 작가



Pureness

01 순수함과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하늘의 공간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런칭에 대한 호기심을 한글 캘리그래피와 모션그래픽의 '아트 오브 블렌딩'으로 풀어낸 '하늘의 공간'. 이곳은 순수하고 신비로운 스카파 해안의 청명함이 느껴지는 곳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 자리를 잡으면 테이블 위에 마련된 아이패드와 벽면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통해 신비롭고도 광활한 하늘의 구름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상징하는 브랜드 컬러인 스카파 블루를 중심으로 다양한 맛과 향을 상징하는 컬러들이 한지 느낌의 바탕에서 번져 나간다.

국내 캘리그래피 분야의 개척자이자 대표주자인 메인 작가 이상현과 모션그래픽 아티스트 문정수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루어진 이 한 편의 예술 작품에서는 한글의 자음들과 알파벳들이 교감하는 연출 속에 아트와 브랜드의 만남이 드러나도록 한 아름다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 더욱 순수하고 신비로운 그곳, 스카파 해안의 모습을 구름 속에서 유영하며 부드럽게 보여지는 한글과 알파벳의 캘리그래피로 연출했으며, 하늘 속 캘리그래피 연출 부분은 역동적 라인으로 다채롭게 커버하여 아름답고 순수하며 신비로운 스카파 지역의 자연을 표현하였다.



| 바람의 공간 | 이상현, 주홍모 작가



Wind

02 시원함과 상쾌한 향기가 느껴지는 바람의 공간

온통 화이트로 꾸며져 깨끗하다 못해 투명하게 느껴지는 이 공간은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할 정도로 상쾌하다. 컨셉룸 '바람의 공간'에는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부드러운 향이 바람에 퍼져나가는 이미지를 상상하여 표현한 독특한 화에 작품이 전면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바로 화예작가 주홍모의 작품으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이 지닌 상쾌하고 달콤한 향이 뿜어 나가 발렌타인의 역사가 바람처럼

이어져 온 것을 형상화하였다. 또 작품 속에서 한국의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의 눈과 향기를 상징하는 한글 'ㅎ'을 결합하여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만의 바람 문양을 만들고, 그 안에 두꺼운 장지로 캘리그래피를 연출하여 전체 작품의 정점을 찍었다.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맛과 향기, 여운은 묵향에 실어 표현했다.

화예와 캘리그래피라는 두 가지 아트의 만남은 유니크하면서도 긴 여운을 남겨 머무는 내내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 날리는 향기에 취한 듯한 감흥을 놓을 수가 없게 한다.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그 향기가 온몸으로 번져 들어 순간적으로 미지의 자연으로의 기분 좋은 탐험과 감미로운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체감을 순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별
스카파의

| 별의 공간 | 이상현, 조성욱 작가



Star

03 은은한 별빛 속에 눈부시게 빛나는 주인공이 되는 별의 공간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가장 큰 특징은 입안에 퍼지는 달콤하면서도 입체적인 맛과 향이다. 세 가지 컨셉의 방 중 '별의 공간'은 바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이러한 맛과 향을 공감하기 위해 마련된 곳. 한지조명작가로 활동 중인 조성욱 작가와 이상현 작가가 함께한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벽면을 가득 메운 화사한 한지조명작품이다.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의 드넓은 자연과 밤하늘의 별 속에 누워있는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의 이 공간은 화려하기보다는 은은하고 따스하며 신비로운 그 자체의 깊이가 느껴지는 곳이다. 한글 캘리그래피와 한지조명이라는 독특한 만남이 자아내는 유니크함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맛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인 조합이다. 이상적인 순수함과 라이트함을 지닌 스카파 지역의 미지의 자연을 독특하고 입체적인 한지의 질감과 연출로 표현했으며, 독특하면서도 숙련된 증류법으로 완성된 이번 스페셜 에디션을 평면의 이미지가 아닌 입체적 조형물로 연출함으로써 그 영롱한 맛의 느낌을 구체화시켰다. 한지의 독특하고 입체적인 구김 연출 속에 글귀와 라이트 블루 컬러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맛을 담아 내었고, 한지 속에는 조명을 넣어 신비로운 별빛을 연출하였다.

Meet Ballantine's 17 Scapa Edition

01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이 만난 사람들 - 이상현

이상현 작가가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하늘, 바람, 별을 붓 하나로 표현해 내었던 이번 브랜드 컨셉룸은 미지의 자연을 담고 있는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 그의 작품들은 캘리그래피와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과의 '아트 오브 블렌딩' 이었다는 측면에서도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다음은 그와의 짧은 인터뷰.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자연의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맛과 향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발렌타인과의 프로젝트는 처음이신데, 작품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준비를 위해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알고 싶었죠. 직접 먹어보고 그 맛과 느낌은 어떤지 알아야 작품에 마음을 녹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마셔봤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작품에 어떻게 다가가야 좋을지, 또 어떤 새로운 면을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던 저에게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맛은 한 마디로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 바람, 별의 공간이라는 모티프가 상당히 시적인데, 어떻게 얻게 되셨는지요? 답은 의외로 쉽게 풀렸는데요. 처음부터 발상이 떠오른 것은 아니지만 고민하다 보니 '나는 누구고 내가 접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어요. 생각 끝에 제가 작업하는 목향의 배경인 북극씨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캘리그래피적으로 표현하면서 동서양의 만남을 표현하고, 그 안에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만의 브랜드 컨셉을 접목시켰죠.

각 공간마다 느낌이 다른데,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어떤 이미지가 담겨있나요? 하늘의 공간은 같이 한번 놀아보고 싶은 친구 같은 이미지를 생각했고, 별의 공간에서는 부드럽고 은은한 맛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바람의 공간에선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풍부한 향이 퍼지는 이미지를 생각해 봤지요. 한 마디로 세계의 방은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이 지닌 세 가지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사 중 퍼포먼스를 하셨는데, 굳이 바람의 방에서 퍼포먼스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퍼포먼스란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행위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감이라는 것이죠. 이번 작품에서의 교감은 자연을 주제로 하는 것이었고, 전 그 중에서도 '자연의 에너지'를 가장 주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바람의 공간에서 표현하고자 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향기는 즉, 이 제품이 지닌 에너지이자 자연이 지닌 에너지이며 이는 바람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으니 바람의 방이 그 장소로 정해진 것이지요.



이상현 작가가 바람의 공간에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이상현 작가가 퍼포먼스에 사용한 붓과 물감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프로젝트를 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기존의 '발렌타인 17'은 어떤 이미지였는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가지고 있던 발렌타인 이미지는 쉽게 표현하자면... 단정한 옷차림에 보타이를 맨 공부 잘 하는 신사 같았지요. 그런데 그 생각은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마시는 순간 싹 없어졌어요. 그간 제가 만났던 발렌타인들이 교과서적이고 모범생 같은 위스키였다면, 이번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더욱 젊어지고 활기찬 느낌이랄까? 약간의 일탈이지만 젊음과 신선함과 자유분방함으로 느껴져서 오히려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혀 달랐죠.

프로젝트가 끝난 후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생각이 나신다면 언제쯤일까요? 패키지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순수한 대자연의 이야기를 하나에 담아둔 것 같은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즐거운 친구들과 마셔도 좋을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도 좋을 것 같네요. 전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을 때 생각날 것 같네요.

세 번째 에디션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제품이었던 하세요? 제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열정에 대한 부분들이 담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즐거움과 새로움, 젊음, 신선함...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이었다면 그다음엔 인간이 가진 열정을 담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위스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잖아요.

캘리그래피로서 앞으로의 작품의 행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전 원래 전통 서예를 전공했어요. 전통이라는 맥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서예가로서의 저만의 이야기를 풀고 싶었죠. 그런데 서예라는 장르 자체가 대중들에게는 무거운 예술이라 '나 혼자만 즐길 수 있는 예술이 아닌 소통을 하자'는 생각으로 대중들 앞에 캘리그래피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죠. 이번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프로젝트는 그런 점에서 제게 사람들과의 만남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시간이 되어주었어요. 용기를 얻었지요. 앞으로는 더욱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교감할 수 있는 트렌디한 글씨 문화를 이어나가고 싶네요.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컨셉룸을 창조해 낸 아티스트 4인 소개

컨셉룸 메인 작가 이상현, 캘리그래피스트
국내 캘리그래피 분야의 개척자이자 대표주자로서 서울 G20 정상회의, 서울스퀘어미디어 캘리그래피 영상전, 세종문화회관 세종이 야기 초대 개인전 등을 통해 캘리그래피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을 접목시킨 퍼포먼스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태극기 휘날리며> <타짜> <로열 패밀리> 등 다수의 영화 혹은 타이틀 작업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 서예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하늘의 공간' 참여작가 문정수, 모션그래픽 아티스트
모션그래픽 아티스트이자 현재 Gallery FM 333.3의 디렉터로 활동 중. <형사> <아수> <음란서생> <역도산> <늑대의 유혹> 등 다수의 영화 타이틀 디자인 및 송도 국제신도시 오픈링 / 한려수교 20주년 문화축제에 초청되는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부천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흥익대, 청주대 등에서도 관련학과 강의를 하고 있다.

'바람의 공간' 참여작가 주홍모, 화예작가
네덜란드 원예학교 Aoc de Groene welle에서 Flower Arrangement 수료 후 화예작가로서 활동 중. 특히 2010년 제7회 싱가포르 가든 페스티벌 FDSS컵 프로페셔널 부문 대상 및 최우수디자인상 수상, 2011년 인터컨티넨탈컵 한국대표, 2011년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대회에서 시연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예작가로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별의 공간' 참여작가 조성욱, 한지조명작가
텍스타일 디자인을 공부하다가 한지가 가지는 매력에 이끌려 현재 한지조명작가로 활동 중.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수의 개인전과 밀레니엄 서울 힐튼 조명 작품을 연출하였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캘리그래피 작가 모임인 <어울림> 회원으로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에 매진 중이다.

Private Party with Ballantine's 17 Scapa Edition

02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이 만난 사람들 - 장광효와 지인들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런칭 기념 행사의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19일, 남산 스테이트 타워에서는 특별한 파티가 열렸다. 세상에 감성을 입히는 디자이너 장광효와 그와 각별한 사이의 지인들, 그리고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발렌타인 17 디스틸러리 에디션을 즐기며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늘, 바람, 별의 공간은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느낌을 깊게 담고 있습니다. 직접 시음해 보시면 그 느낌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기념 런칭 파티의 마지막 날이었던 19일 오후 7시 남산 스테이트 타워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훈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디자이너 장광효와 깊은 친분을 나누고 있다는 것. '장광효와 지인들'이라 이름 붙여진 이들은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경험하고 저물어가는 2011년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모였다.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디스커버리, 장광효 선생님과 소중한 지인 분들에게 유니크한 브랜드 경험과 잊지 못할 프라이빗 파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디 기억에 남을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라는 발렌타인 측의 오프닝 멘트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런칭 기념 행사 마지막 날의 파티가 시작되었다.

이 특별한 파티는 브랜드 컨셉품 작품 감상, 멘토링 프로그램, 디너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도착한 지인들은 그들의 '친구 장광효'를 기다리며 작품도 감상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사진도 찍는 모습이었다.

본격적인 파티는 발렌타인의 새로운 위스키를 체험하는 짧은 여행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하늘, 별, 바람을 모티브로 연출한 작품에 대한 감상과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 자리에 함께한 이들은 '별의 공간'에서는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달콤하고 입체적인 맛을 서정적인 별에 접목시킨 작품을 감상하며 큰 호평을 보냈다. 또 '하늘의 공간'에서의 호기심을 일게 하는 영상 작품에는 그 곁하고 순수해 보이는 영상의 미에 모두 진중히 심취하다가도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향을 표현한 '바람의 공간'에서는 아름다운 공간에 모두가 감명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캘리그래퍼의 퍼포먼스 영상을 마지막으로 '장광효와 지인들'의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향한 첫 번째 여정은 긴 여운을 남긴 채 끝이 났다.



디자이너 장광효는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표현한 작품에 대한 감상과 설명이 끝나자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이미 접해본 경험이 있어 하늘과 바람과 별이 담긴 이 작품들 속에 그만의 느낌이 깊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런 게 마음은 여러분도 직접 시음을 해보시면 알 것”이라며 모두가 작품을 더욱 인상 깊게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위스키와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위한 깊이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들이 이동한 장소에 준비되어 있는 큰 책장과 넓은 탁자, 각종 서적과 테이스팅 키트는 이곳이 '장광효와 지인들'이 본격적으로 발렌타인을 만나게 될 곳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위스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탄생 배경과 특유의 색상과 맛, 세심한 부분까지 멘토링을 통해 배우는 내내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그들의 주변을 맴돌았다.

시음과 함께 멘토링이 끝나자 곧이어 스테이트 타워의 셰프가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곁들인 소스로 만든 스테이크를 비롯한 환상적인 디너를 선보였다. 식사

를 하기 전 건배 제의를 한 디자이너 장광효는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 모임 기회를 마련해 준 발렌타인과 바쁜 일정 속에도 부름에 참석해 준 지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다시 한 번 전했다.

소중한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선사하는 작지만 큰 가치, 여기에 발렌타인이 더해진다면 어떨까. 이날의 행사는 발렌타인이 바로 이런 모임에서 어떻게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회였다. 특히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자리에서 그 시간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잡는 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임에 분명하다. 긴 여운을 남기는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맛과 향만큼이나 이날의 짧은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장광효와 지인들', 그들의 말처럼.



Inspiration, Impression, and Discovery

03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이 만난 사람들 – 6인의 디스커버러

10인의 디스커버러를 웹사이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www.discoverb17scapa.com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가볍지 않은 즐거움에 반짝이는 감성을 더한 위스키



송주명
미디어 파사드 작가

제가 하는 영상 미디어 아트 작업 중에서 팝 사인 작업들이 특히 재밌어요. 가장 애정이 가는 작업이 처녀작이랄 수 있는 GS 타워 미디어 파사드와 현재 플로팅 아일랜드의 미디어 갤러리 작업인데, 내가 만든 이미지들이 도시의 느낌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무겁고 책임감이 드는 작업일 수 있지만 작업하는 재미는 크거든요. 앞으로도 유행이나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기보다는 새로움과 편안함을 함께 추구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발렌타인이 그만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처럼요.

제가 본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편안하고 즐거운 발렌타인만의 이미지에 반짝이는 감성을 더한 위스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마실 때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판화 작업을 할 때 유리가루를 갈아서 뿌리면 살짝살짝 빛이 나거든요. 그런 느낌, 그런 가볍지 않은 재미가 담긴 위스키가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느낌을 공유하셨으면 합니다.

바다가 느껴지는 옛지 있는 위스키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지니킴
슈즈 디자이너

저는 로맨틱 헐리우드 스타일 컨셉으로 레드 카펫에서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구두를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는 세계적인 모델 '미란다 키'와 함께 '베르쉐'라는 브랜드를 런칭했구요. 구두를 디자인할 때도 예전 헐리우드 무비나 빈티지 스토어를 보면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현대의 트렌드와 믹스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렌타인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원래부터 저는 발렌타인 17을 오랫동안 좋아해 왔었는데, 이번에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마시게 되면서 '클래식한 위스키에도 이런 맛이 느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발렌타인 17이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클래식한 블랙 펄프스와 같다면,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모던하면서도 옛지 있는 요즘 유행하는 구두 같은 느낌? 한 입 머금으면 바다의 향과 함께 바다의 푸른 이미지가 느껴져 너무 좋았고,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블루 라벨 디자인에서부터 바다 이미지가 나서 마음에 들었어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니만큼 기회가 될 때 놓치지 말고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와인 대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술로 추천!



김태연, 이정은, 김효진
모델

와인 클래스는 많이 들어봤어도 위스키에 이런 멘토링 클래스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덕분에 중요한 자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마치 아기 살결처럼 부드럽고 가볍지만 또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느낌? 그리고 밝고 젊으면서도 경쾌한 느낌이 있어요. 발렌타인 17과 비교했을 때, 엘레гант한 영국 신사의 느낌과 이탈리아의 자유분방하고 로맨틱한 남자의 스타일링의 차이랄까요. 또 발렌타인 17을 무대에 비유한다면, 이 위스키는 무대 위를 다양하게 연출해서 빛을 주는 조명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여자들이 술을 마실 때 너무 독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분위기는 내고 싶을 때 와인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또한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술이라고 생각해요.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에게 위스키는 독주, 어려운 술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드러운 위스키라 위스키 초보에게도 권해주고 싶은 술입니다.

오감만족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위스키의 새로운 경지를 발견한 느낌입니다



이종호
SADI 제품디자이너와 교수

원래 제가 술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호주 유학 시절에는 와인을 많이 접하며 다양한 테이스트를 많이 알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는 싱글 몰트 위스키를 시작으로 위스키에도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많이 즐기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와인과는 달리, 위스키 문화는 그에 못 미친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었는데,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오감만족의 극치였습니다. 향은 와일드하고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에 반해 그 맛은 굉장히 부드럽고 깊어서 의외였달까요. 현대인의 감성을 잘 자극하는 맛에 위스키 컬러도 눈으로 즐길 수 있어 발렌타인의 새로운 경지를 발견한 듯한 기분입니다.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향과 맛을 경험하고 보니 그 특징이 꽤 키지 디자인과도 잘 매치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술로, 친한 친구에게도 술을 잘 마시지 않는 분께도 꼭 한번 권하고 싶은 위스키입니다.

Taste Ballantine's 17 Scapa Edition

04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이 만난 사람들 – 박정운 스테이트 룸 수석 셰프

같은 17년산이지만 기존의 발렌타인 17과 이번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맛과 향, 마셨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확연히 다른 경험과 인상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많은 이들이 그 부드러운 맛을 인정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에 대해 '맛과 향에 민감한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궁금증을 안고 스테이트 타워의 셰프를 찾았다.

18년째 요리를 해 오신 베테랑이라 들었는데, 주로 어떤 요리를 하시나요?
지금까지 프랑스 요리와 이탈리아 요리, 그리고 아이리시 요리 쪽으로 주로 일해왔습니다. 발렌타인 같은 위스키는 아이리시 요리를 하면서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위스키를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나요? 그럼요. 위스키를 쓰는 음식은 많죠. 대표적으로 영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소스에 위스키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디저트 중에는 초콜릿이나 케이크, 푸딩을 만들 때 위스키를 많이 넣어 씁니다.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과 어울리는 음식이나 디저트도 있을까요?
음, 지난 달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으니까요. 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해서 초콜릿 케이크 안에 트러플 초콜릿 소스와 함께 위스키나 코냑, 럼 같은 걸 집어 넣는 디저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같은 위스키를 더하면 한층 부드럽고 맛있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코타지 파이(Cottage pie)와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발렌타인이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온 것처럼 코타지 파이도 아주 깊고 짙은 향으로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거든요.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접했을 때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처음 한 모금을 먹었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 땅 맛이 났습니다. 아니, 흙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연이 뿜어내는 짙은 향을 처음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다양한 과일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셰프가 보는 기존의 발렌타인 17과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차이는?
글쎄요. 아무래도 발렌타인 17은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이 있고,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해안 지방에서 숙성시킨 위스키라 그런지 몰라도 과일 향을 비롯한 복합적인 향이 아주 풍부한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해야 하나요. 제 생각에 발렌타인 17은 블랙 트러플,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화이트 트러플이라는 식재료와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 트러플은 굉장히 클래식하고, 향도 묵직한 반면에 화이트 트러플은 요리를 하지 않아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향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이용한 음식을 개발하신다면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같은 위스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요리는 대표적으로 소스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 뉴욕이나 한국에서 많은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이 진 비프'의 소스에 접목을 시키는 메뉴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 진 비프도 오랜 숙성 기간을 거쳐서 제대로 된 향을 표출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도 17년이라는 시간의 숙성 과정에서 여러 향이 묻어나기 때문에 드라이 진 비프가 이 제품과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풍부한 과일 향과 라이트하면서 프레시한 느낌을 들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음식에 접목하고 싶습니다.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한마디로 추천한다면? 대자연의 향을 듬뿍 담고 있는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좋은 자리에서 좋은 요리와 함께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위스키입니다.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기프트 팩 출시

설, 추석, 연말 등 2012 기프트 시즌 한정 판매

하늘, 바람, 별 그리고 시.

“미지의 자연, 스카파 지역에서 독특하면서도 숙련된 발렌타인만의
노하우로 탄생한 이번 에디션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위스키 소비자들에게
유니크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발렌타인 위스키 본연의 향과 풍미를 찾아가는 시간

페르노리카 코리아대표 : 장 마누엘 스프리에 Jean-Manuel Spreti의 명실상부한 No.1 프리미
엄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은 2012년의 시작을 특별한 자리에서 더욱 가치 있
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기프트 팩'을 선보인다.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기프트 팩'은 발렌타인 시그니처 디스틸러리(증류소) 시
리즈의 두 번째 제품이자 지난 2011년 11월 초에 출시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과 테이스팅 글라스, 리플렛 그리고 소비자 이벤트 응모를 위한 발렌타인 카드로 구성
되어 있다.

이번 기프트 팩의 가장 큰 특징은 발렌타인 본연의 맛과 향을 탐험할 수 있는 테이스
팅 글라스와 테이스팅 방법을 소개한 리플렛을 함께 구성한 것. 스카파 몰트 원액을 비
중 있게 블렌딩하여 균형 잡힌 완벽한 부드러움을 선보인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
션'과 함께 들어 있는 테이스팅 글라스는 쉽고 간단하면서도 전문적으로 위스키를 즐
길 수 있도록 돕는다.

위스키 테이스팅은 위스키를 마시기 전에 시각, 후각, 미각을 통해 위스키 특유의 풍미
와 향 등을 먼저 경험함으로써 응용의 가치를 높이고 진정한 위스키의 맛을 즐기기 위
한 중요한 과정이다. 발렌타인은 위스키를 제대로 즐기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애호가들
에게 새로운 경험과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테이스팅 퍼스트 컬처(Tasting
First Culture)'를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이 미디어에 공개되던 날

지난 11월 20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
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선보였다. 일요일인데다 기온이 푹 떨어져서 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
사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처음 공개되는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직접 보려는 인파
들이 몰려 오하려 그 열기가 뜨거운 현상이었다.

스코틀랜드의 하이랜드 지역에 위치한 스카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잡힌 부드러움이 조화된 이
번 에디션은 풍부한 과일 맛과 바닐라 향이 조화를 이룬 제품으로 부드러움의 구간이 되는 스카파 몰
트가 강조됐다.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기프트 팩

가격 150,000원 (700ml/백화점가 기준)
판매처 전국 주요 발렌타인 판매처
소비자 문의 02-3466-5700



설, 추석, 연말 등 2012 Gift 시즌 한정 판매



Ballantine's 17 Signature Distillery Editions



첫 번째 에디션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200주년

발렌타인 17년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Signature distillery 에디션의 첫 번째 버전 발렌타인 17년 글렌버기 200주년 에디션은 지난 1810년 이후 발렌타인의 맛과 향의 중심이었던 글렌버기 증류소의 200주년을 기념하여 탄생된 한정판으로 희소성과 소장 가치가 높은 제품이다. 사과 향에 꿀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고, 오랜지 맛이 벨벳처럼 부드러운 감촉으로 입안에 오랜 여운을 남긴다.

Tasting note

Color 황금빛 호박색
Nose 우아하게 균형잡힌 풍부한 향
Body 크리미하고 달콤한 부드러움
Taste 복합적이면서도 부드러운 향긋한 맛
Finish 여운이 오래 남는 라이트한 오크 향



두 번째 에디션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스코틀랜드의 하이랜드(Highlands) 지역에 위치한 스카파 디스틸러리 스페셜 에디션으로 이국적이고 드넓은 스카파 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었다. 발렌타인 본연의 우아하고 균형 잡힌 부드러움에 풍부한 과일의 맛과 바닐라 향이 조화를 이룬 제품으로 발렌타인의 완벽한 부드러움의 근간이 되는 스카파 몰트가 강조되었다.

Tasting note

Color 밝은 황금색(아메리칸 버번 오크 사용)
Nose 바닐라 크림, 꽃향기, 희미한 바다 향
Body 순수함, 고급스러운 부드러움
Taste 매끄러움, 바닐라의 단맛, 희미한 짠맛
Finish 신선한 바다 향의 여운



Ballantine's 17

이상적인 스카치 위스키의 가치를 실현하는
발렌타인 가문의 대표 브랜드

발렌타인 17년은 선명한 황금 호박색으로 오크 향의 달콤함과 감미로운 바다감을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위스키 중 하나이다. 우아하고 균형 잡힌 부드러움으로 위스키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발렌타인의 대표작이다.

Tasting Note

Color 영롱한 황금빛 앰버 컬러
Nose 우드와 바닐라 느낌이 균형 잡힌 깊고 우아한 향
Body 크리미하고 매혹적인 풀 바디
Taste 오크와 피트의 스모키한 향이 묻어나는 허니의 달콤한 맛
Finish 가벼운 스모키함과 바닐라의 긴 여운



Ballantine's 21

예술적 스타일을 지닌
스코틀랜드의 자부심

발렌타인 21년은 위스키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위스키로, 반짝이는 황금색, 향기로운 꽃 향, 아로마틱한 풍미 등의 오묘한 특성을 갖고 있다. 고급 위스키의 전형으로 칭송받는 발렌타인 21년은 비단처럼 부드럽게 혀에 감기는 은은하고도 긴 여운을 지닌 위스키의 대명사이다.

Tasting Note

Color 반짝이며 붉은 빛이 도는 골드 컬러
Nose 허니의 달콤함에 애플과 플로럴 향이 조화를 이룬 향
Body 부드러운 새틴 느낌의 바디
Taste 헤더, 스모크, 감초, 아로마틱 풍미가 느껴지는 미디움의 바디감
Finish 드라이 웨리 느낌이 오래 지속되는 원숙한 끝 맛



Ballantine's Limited

진귀한 몰트만으로 빚어낸
최상의 위스키

발렌타인 리미티드는 글렌토쳐스 몰트, 톨모어 몰트, 밀튼더프 몰트 등 상업적으로 판매되지 않고 오직 리미티드에만 사용되는 희소성 높은 몰트들로 블렌딩되어 그 특별함을 더한다. 발렌타인 리미티드의 또 다른 특징은 3명의 마스터 블렌더에 의해 완성된 장인정신의 결정체라는 점이다. 가장 진귀한 원액과 마스터 블렌더의 장인정신으로 빚은 최상의 위스키답게 병마다 고유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고급스러운 우드 프레임에 가죽 느낌을 더한 소재의 커버로 고급 위스키의 품격을 높인다.

Tasting Note	
Color	풍부한 황금 호박색
Nose	온화하고 풍부한 달콤함, 감초와 오렌지의 향이 배어나는 성숙한 풍미
Body	크리미하면서 부드럽고 매끈함
Taste	풍성한 첫 맛이 발렌타인 특유의 잘 익은 배와 복숭아, 바닐라의 맛으로 이어짐
Finish	입 안을 따뜻하게 감싸며 긴 여운을 남김



Ballantine's 30

소수의 선택된 분들에게만 허락되는
최고의 프리미엄

발렌타인 30년은 수퍼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중 단연 최고 제품이다. 직접 수작업으로 고른 몰트와 그에 인 위스키가 최소 30년의 숙성기간을 거친 후 완벽한 경지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발렌타인 30년으로 탄생된다. 한정된 수량으로 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명품 위스키이며, 시니어급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 탁월한 선택으로 꼽히는 희소성과 특별함을 지닌 위스키이다.

Tasting note	
Color	깊은 골드 컬러
Nose	섬세한 오크 향과 바닐라 향이 어우러진 달콤한 향
Body	강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의 매혹적인 풀 바디
Taste	쉐리, 허니, 플로럴, 바닐라의 풍부하고 깊은 향이 감미롭게 어우러진 맛
Finish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는 우아한 끝 맛

스카파의 별, 그리고 시.

발렌타인 17년이 한 편의 시로 다가오다.

별이 머금은 깊고 감미로운 맛과 은은하고 긴 여운을 담다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UNDISCOVERED NATURE OF SCOTLAND

4

Art of Blending

Discover tastes of Ballantine's

위스키 초보든 발렌타인 애호가든 가치를 진정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신이라면, 발렌타인이 만들어 가는 '테이스팅 퍼스트 컬처'와 '멘토링 프로그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asting

Tasting First Culture

작은 인식의 전환이 이끄는 큰 변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는 위스키의 종류는 100여 가지에 달한다. 또한 그 각각의 위스키의 맛과 향을 구분하면서 제대로 음미했을 때, 우리는 그 극대화된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위스키를 깊이 있게 테이스팅하는 문화는 위스키의 역사에 비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와인과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테이스팅 퍼스트 컬처를 이끌려는 발렌타인의 움직임은 위스키를 마시기 앞서 1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한 테이스팅 과정을 통해 맛과 향을 깊게 음미하고, 그 위스키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한 후 음용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테이스팅을 위한 이 짧은 시간이 업무나 과로에 지친 이들의 피로를 풀어 주고, 그들에게 새로움을 경험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Tasting First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1분의 가치

발렌타인이 말하는 '테이스팅 퍼스트'는 전혀 복잡하지 않다. 단지 노징 글라스와 미네랄 워터만 있으면 쉽게 위스키 테이스팅을 즐길 수 있으며, 테이스팅 퍼스트를 위한 이 간단한 실천을 통해 얻는 만족감과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테이스팅을 위한 노징 글라스가 따로 없는 경우라도,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를 이수한 스태프나 발렌타인 앰배서더에서 교육을 받은 주요 업장을 통해 테이스팅 퍼스트 방법을 배우면서 노징 글라스를 이용해 위스키 테이스팅을 해볼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출시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선물세트는 개인 소장용 위스키를 포함하고 있어 집에서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향유할 수 있다.



위스키 테이스팅 방법

빛깔 보기

밝은 빛에 비춰 위스키 본연의 색을 봄으로써 숙성에 쓰인 오크통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향 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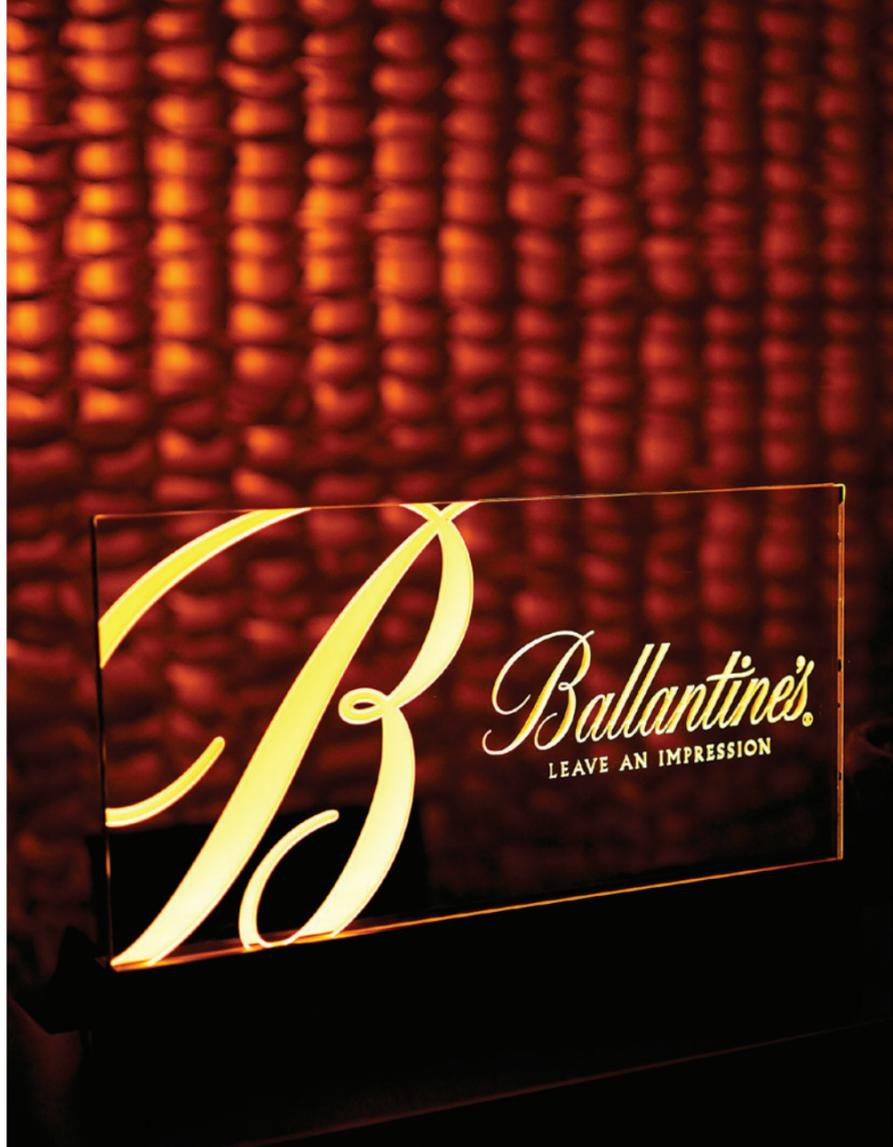
향을 코로 맡는 것은 위스키 테이스팅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 천천히 숨 쉬듯 향을 맡음으로써 느껴지는 위스키의 특징과 생산 지역, 사용된 오크통 등을 알 수 있다.

맛보기

한 모금 입안에 가득 머금고 음식물을 씹듯 혀 전체에 골고루 문힌 후 삼킨다. 시간이 지나 강한 알코올 향이 사라지면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등 다양한 맛을 감상할 수 있다.

물과 섞기

위스키에 물을 섞는 이유는 위스키의 숙성 과정에서 닫힌 향을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약간의 물에 희석시킨 위스키는 숨어 있는 비밀스러운 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2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모습
3 테이스팅 키트
4 테이스팅 키트와 노징 글라스



Discov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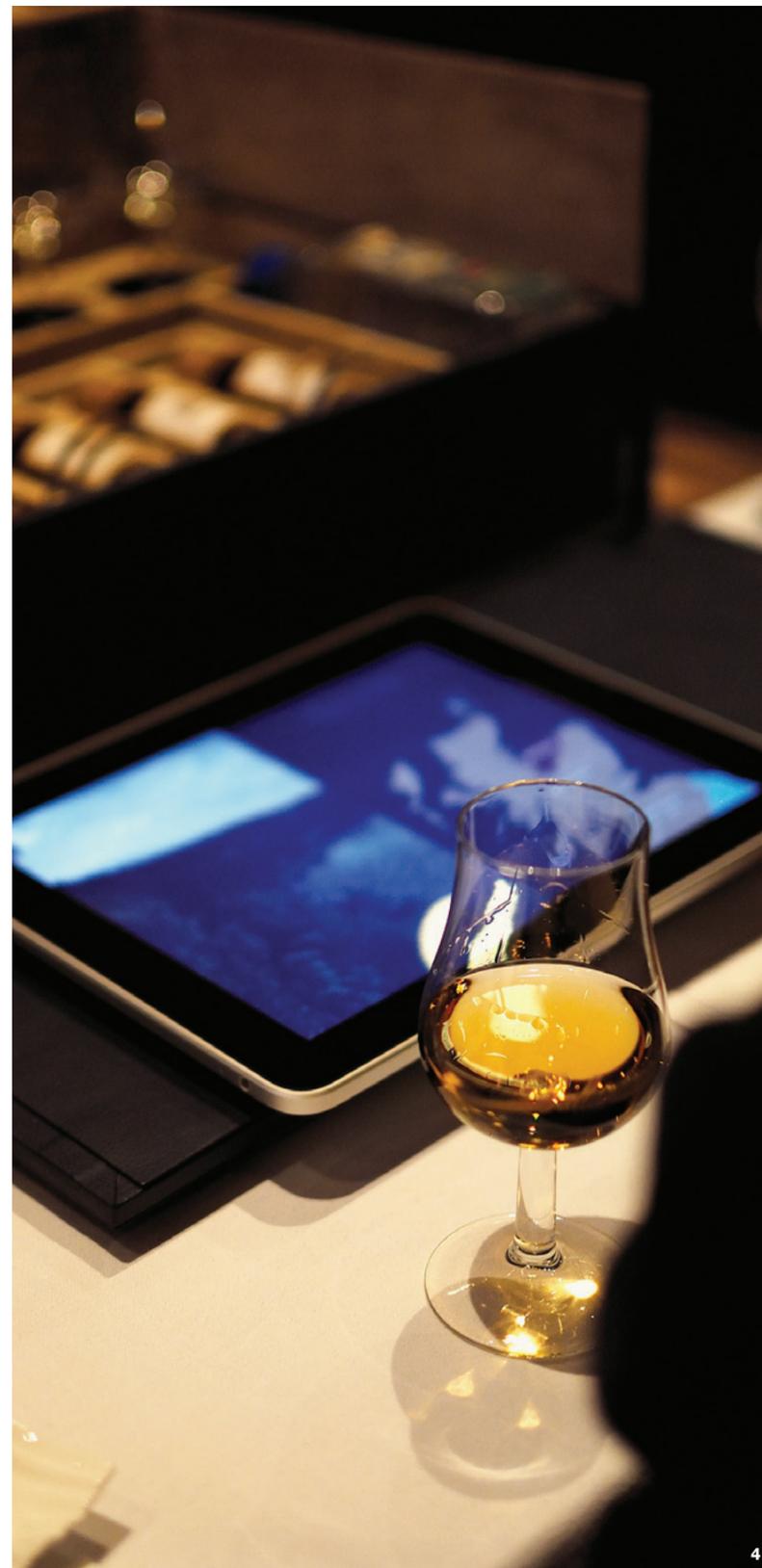
발렌타인으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

Ballantine's Mentoring Program & Networking Party

위스키 전문가와 함께하는 발렌타인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위스키의 역사와 유래, 위스키마다의 특성 등 위스키에 관한 모든 것을 편안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듯이 배울 수 있는 자리이자, 마치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 탐험과도 같이 발렌타인 위스키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다. 단순히 위스키 정보 전달의 역할뿐 아니라 위스키 애호가들에게는 전문적인 정보 및 사회적 교류의 장을, 처음 접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발렌타인 멘토링 프로그램.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3



독보적인 고품격 발렌타인, 그 가치를 만나다

Journey to Timeless Classic

지난 11월, 신사동 프라이빗 라운지 '클럽 모우 서울'에서는 특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날의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스키에 대해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자리였음은 물론, 발렌타인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소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욱 향기롭고 그윽한 감흥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세계적인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답게 이날 '클럽 모우 서울'의 분위기는 스코틀랜드의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으로 연출되었다. 참가자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최대한 자유롭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이 돋보이는 부분이었다. 테이스팅 클래스와 디너, 그리고 파티로 이어지는 컴팩트하면서도 인상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는 탐험이 시작되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순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스카치 위스키의 대명사로서 발렌타인이 이어온 명성과 히스토리가 펼쳐진 데 이어, 스코틀랜드의 자연과 발렌타인 증류소가 위치한 4개 지역의 소개가 있었다. 클래식한 가죽 케이스 안에 각 지역에서 제조된 5개의 위스키 미니어처와 노징 글라스, 미네랄 워터가 담긴 테이스팅 키트는 이날 가장 눈에 띄는 소품으로 관심을 끌었다.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위스키의 특징에 대해 위스키 전문가가 설명할 때마다 참가자들은 그 즉시 시음을 함으로써 그동안 즐기던 발렌타인의 세계를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유니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발렌타인의 불변하는 가치를 대를 이어 전수하고 있는 마스터 블렌더라는 존재와 예술에 가까운 블렌딩에 대한 설명 또한 있었다. 참가자들에게는 한국에는 없는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직접 시음하는 과정을 통해 위스키 전문가로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마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자연이 만든 한 편의 시를 만나다

Undiscovered Nature of Scotland

멘토링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특별히 새로 출시되는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이 장식했다.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스페셜 에디션에 이어 미지의 자연에 위치한 스카파 증류소를 기념하기 위한 이번 두 번째 에디션은 우아하고 균형 잡힌 부드러움에 풍부한 과일의 맛과 환상적인 꽃향기가 반영된 제품. 순수하면서도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시음으로 마무리된 행사에 대해 참가자들은 색다른 시각과 경험을 갖게 해준 주최 측과 위스키 전문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발렌타인이 한결같이 지켜 온 위대한 유산과 명작들이 제공하는 독특한 경험. 이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들간의 끈끈한 유대감. 이것이 우리가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이유이자 앞으로의 발렌타인이 더욱 기대되는 까닭이다.

4



MINI INTERVIEW

그들이 본 멘토링 프로그램

발렌타인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소수의 인원만 즐기기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용한 내용으로 알차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평소 위스키에 대해 잘 모르던 사람도 위스키 전문가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각계의 유명인사들이 위스키란 토픽으로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위스키와 비즈니스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단순한 위스키 클래스 그 이상의 가치를 더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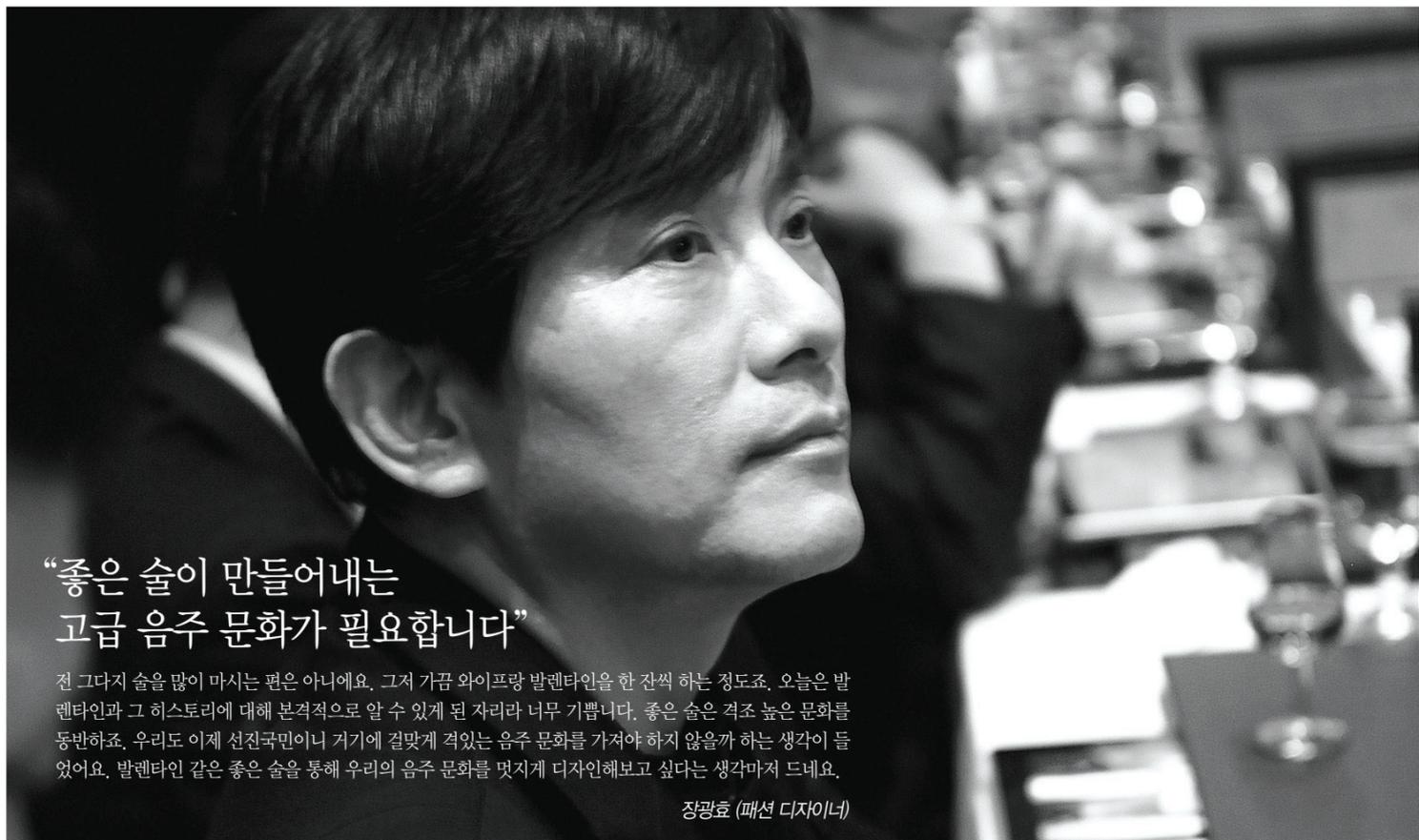


“특유의 풍미, 그 비밀을 알고 나니 더욱 애착이 갑니다”

평소 워낙에 위스키 종류를 좋아하는데다 발렌타인은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어 특히 사랑하는 편입니다. 언더락으로 마시는 발렌타인은 늘 바쁘고 긴장감으로 가득한 일상을 기분 좋게 이완시켜 주는 친구 같은 존재죠. 변하지 않으면서도 늘 특별한 발렌타인의 맛의 비밀이 늘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장인들이 명예를 걸고 지켜내는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오늘날의 내가 마시는 발렌타인이 되다니... 스코틀랜드의 신비로움이 더해진 발렌타인만의 히스토리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네요. 오늘 이후로 발렌타인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광걸 (두산매거진 광고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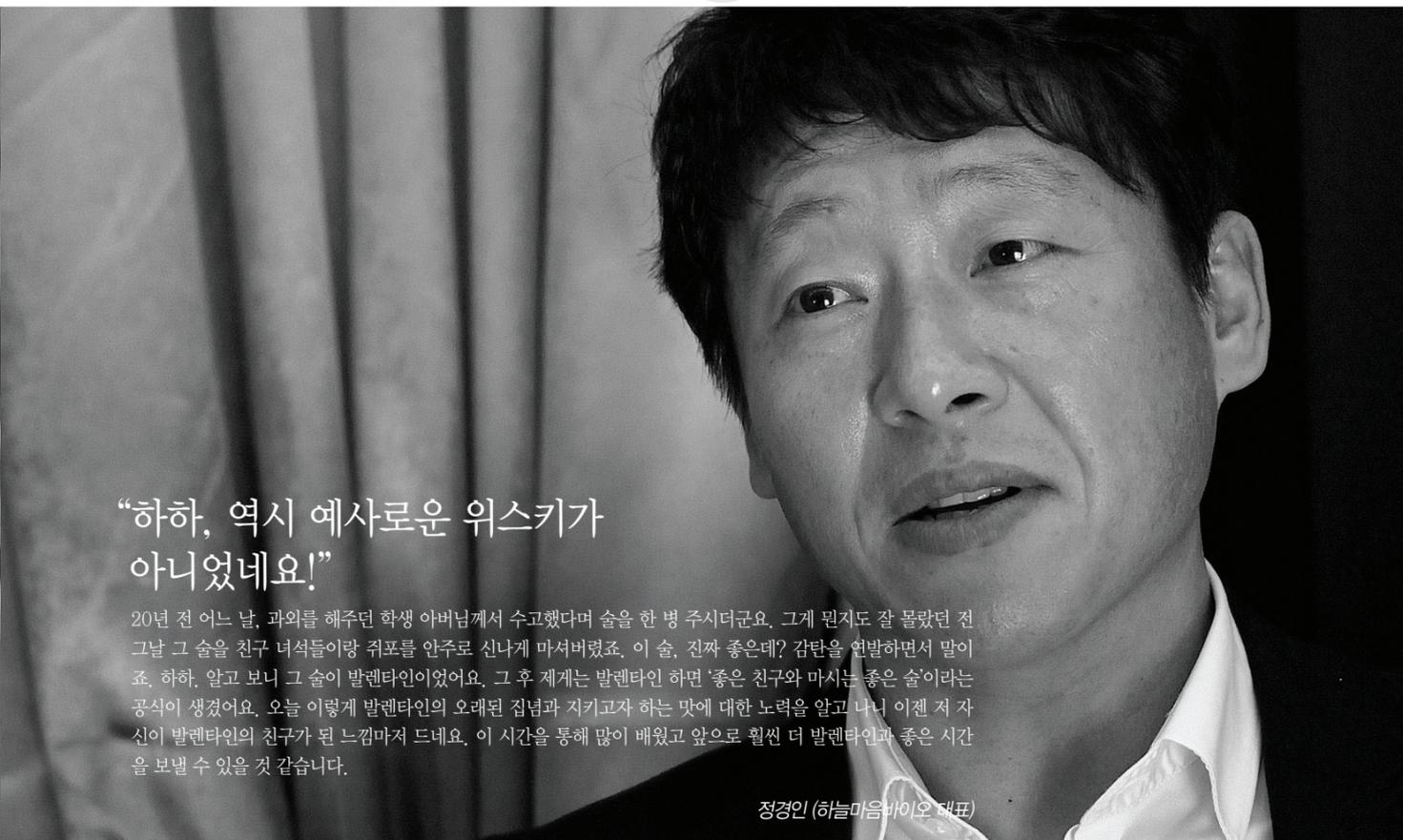
Networking



“좋은 술이 만들어내는 고급 음주 문화가 필요합니다”

전 그다지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에요. 그저 가끔 와이프랑 발렌타인을 한 잔씩 하는 정도죠. 오늘은 발렌타인과 그 히스토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 수 있게 된 자리라 너무 기쁩니다. 좋은 술은 격조 높은 문화를 동반하죠. 우리도 이제 선진국민이니 거기에 걸맞게 격있는 음주 문화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렌타인 같은 좋은 술을 통해 우리의 음주 문화를 멋지게 디자인해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장광호 (패션 디자이너)



“하하, 역시 예사로운 위스키가 아니었네요!”

20년 전 어느 날, 과외를 해주던 학생 아버님께서 수고했다며 술을 한 병 주시더군요. 그게 뭔지도 잘 몰랐던 전 그날 그 술을 친구 녀석들이랑 쥐포를 안주로 신나게 마셔버렸죠. 이 술, 진짜 좋은데? 감탄을 연발하면서 말이죠. 하하. 알고 보니 그 술이 발렌타인이었어요. 그 후 제게는 발렌타인 하면 '좋은 친구와 마시는 좋은 술'이라는 공식이 생겼어요. 오늘 이렇게 발렌타인의 오래된 집념과 지키고자 하는 맛에 대한 노력을 알고 나니 이젠 저 자신이 발렌타인의 친구가 된 느낌마저 드네요. 이 시간을 통해 많이 배웠고 앞으로 훨씬 더 발렌타인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인 (하늘마음바이오 대표)



Nosing Glass

위스키 테이스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글라스 선택이다. 와인에도 각 포도 품종별 특성을 살려 주는 다양한 모양의 글라스가 있듯이 위스키를 제대로 즐기 위해서는 '위스키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적당한 용기, 즉 '노징 글라스'가 필요하다. 특히 오래 숙성된 위스키는 향이 풀리는 데에도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대로 풀린 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노징 글라스가 가장 적합하다. 주로 툴립 모양의 셰리 코피타(Sherry Copita)나 여러 가지의 노징 글라스를 위스키 테이스팅 시 사용하는데, 이 때 노징 글라스는 수십 년간 숙성된 위스키 본연의 맛과 향을 일깨워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All about Whisky

위스키를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위스키 원산지별 분류

1 스카치 위스키

스코틀랜드에서 생산되는 위스키의 총칭이다. 보통 스카치라고도 불린다. 1952년 영국에서 발명된 관세와 면허세법에 의하면 보리싹의 디아스타제에 의해 당화된 곡류의 거르지 않은 술로써, 스코틀랜드 내에서 증류하여 최소한 40%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위스키에 한하여 스카치라고 부른다.

2 아메리칸 위스키

미국에서 생산되는 위스키의 총칭이다. 아메리칸 위스키하면 보통 라이 위스키를 가리킨다. 1795년 제롬 빔이 켄터키 주의 버번 지방에서 옥수수 위스키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메리칸 버번 위스키의 발단이다.

3 아이리쉬 위스키

아일랜드산의 위스키 총칭이며 사실상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위스키다.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부에 있는 영연방의 한 주인 노던 아일랜드로 나뉘어져 있다. 스카치 위스키와 제조법이 비슷하나 스카치 위스키보다는 좀 더 무거운 맛의 느낌이 나는 게 특징이다.

4 캐나다 위스키

캐나다에서 만들어지는 위스키의 총칭이다. 주재료인 호밀 51%와 곡류를 혼합하여 갈음한 다음 발효 증류 후 오크통에 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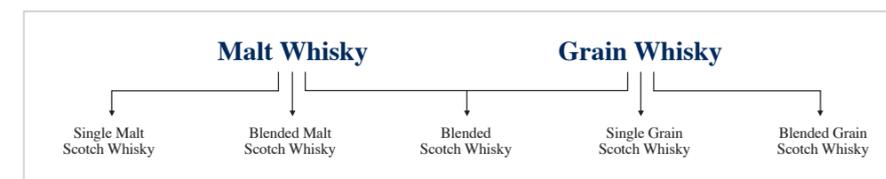
5 일본 위스키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위스키의 총칭이다. 총체적으로 섬세한 풍미를 가지며 순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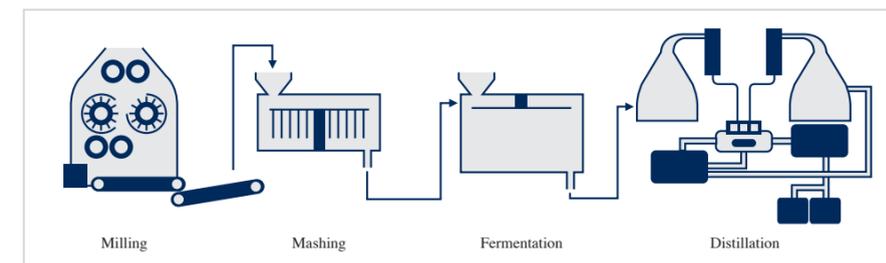
스카치 위스키의 분류

- 1. 몰트 위스키 → 싱글 몰트 위스키,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 2. 그레인 위스키 → 싱글 그레인 위스키, 블렌디드 그레인 위스키
- 3. 블렌디드 위스키 → 몰트 위스키 + 그레인 위스키



몰트 위스키의 제조 공정

보리(침맥) → 발아 → 건조 → 분쇄 → 당화 → 발효 → 증류 → 숙성



블렌디드 위스키

향이 강한 몰트보다 좀 더 부드럽고 다양한 위스키를 즐기기 위해 탄생한 블렌디드 위스키는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우리가 음용하는 스카치 위스키의 대부분이 이 타입의 제품이다. 블렌디드 위스키는 가벼운 촉감과 알맞은 향을 지녀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블렌디드 위스키의 제조는 각기 다른 특색 있는 여러 종류의 몰트 위스키를 섞은 다음 이것을 다시 그레인 위스키와 섞게 되는데, 이 작업은 감각이 예민하고 경험이 풍부한 마스터 블렌더에 의해 이뤄진다. 스카치 위스키는 크게 보리로만 만들어지는 몰트 위스키와 보리와 옥수수, 당밀 등 시리얼과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그레인 위스키로 분류된다. 그리고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소는 스코틀랜드 각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각각의 다른 풍미를 가지게 된다. 스카치 위스키에 블렌딩이 필요한 이유는 한 병에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위스키의 풍미를 담아 내어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과 그 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마스터 블렌더

블렌딩을 하기 전 오크통에서 숙성되어진 몰트 원액과 그레인 원액은 같은 증류소, 같은 숙성 창고에서 같은 원료로 만들어지더라도 숙성되는 시간에 따라 각기 미세한 맛과 향의 차이를 보인다. 그 미세한 차이는 향후 블렌딩이 되어졌을 때의 맛과 향 등 품질에 있어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200여 년 전 40여 종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어진 몰트와 그레인 원액을 블렌딩하여 탄생한 발렌타인이 가지는 그 전통의 맛과 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마스터 블렌더는 블렌디드 위스키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예술가로 할 수 있다.



BALLANTINE'S PICK

Global Art & Culture Trend

세계의 문화와 예술, 트렌드에 주목하는 당신을 위해, 발렌타인이 추천하는 국내 및 해외 축제/행사 소식을 한눈에 만나 보는 시간.



TEFAF Maastricht 2012

TEFAF 마스트리히트

2012.03.16 - 03.25 /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 www.tefaf.com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예술 및 공예품 전시회, TEFAF 마스트리히트에 참여하는 것을 유명한 수집가들 및 박물관 바 이어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는 것처럼 높은 품질의 다양한 예술품과 공예품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TEFAF의 9개 부문에서는 현대 미술, 고전 명화, 그림, 도자기, 아시아 예술, 은제품, 공예품, 가구 및 현대 디자인 걸작품 등과 같은 훌륭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16개국에서 참여하는 260명의 전시업자들은 TEFAF를 위해서 최고의 작품을 아껴둔다. 이들의 감식안은 약 170명의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29개 팀이 실시하는 엄격한 조사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오직 최고만을 전시한다는 TEFAF의 명성이 유지될 수 있다.



01 January



02 February



03 M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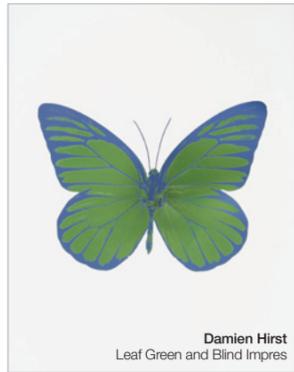


04 April



* 본 정보는 주최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1 January



토론토 국제 보트 전시회
Toronto International Boat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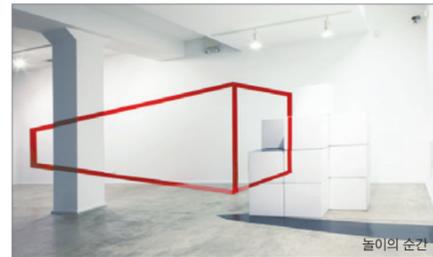
2012.01.14 - 01.22
캐나다 토론토
www.torontoboatshow.com

Direct Energy Centre에서 열리는 해양 레저 스포츠 및 보트 전시회. 1937년부터 이어져 온 세계적인 전시회로 미국, 호주, 일본, 유럽, 브라질, 멕시코 등 주요 생산국들의 파워, 메가, 세일 요트 등을 해상에서 직접 전시. 8만 명 정도가 관람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트쇼 2012
The Los Angeles Art Show 2012

2012.01.18 - 01.22
미국 로스앤젤레스
www.laartshow.com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LA 아트쇼는 미국 시카고 아트 페어와 함께 권위를 더하고 있는 국제 규모의 아트 페어. 미국, 프랑스, 홍콩, 한국 등 전 세계 각 지역의 갤러리가 참가해 페인팅, 판화, 조각, 설치 미술, 디자인, 그래픽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해외 작가 초대전 - 놀이의 순간

2011.12.22 - 2012.02.15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www.sac.or.kr

국제 미뎀 음악 박람회

2012.01.28 - 01.31 / 프랑스 칸느
www.midem.com

북아메리카 국제 오토쇼

2012.01.09 - 01.22 / 미국 디트로이트
www.naias.com

국제 카지노 박람회

2012.01.24 - 01.26 / 영국 런던
www.icetotallygaming.com

02 February



리우 카니발
Rio Carnival

2012.02.18 - 02.21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www.rio-carnival.net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4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리는 세계 최대의 축제. 브라질의 여름 휴가가 끝날 때쯤 시작되는 리우 카니발은 그 참가 인원 수만 10만 명이 넘는다. 리우 카니발의 핵심은 삼바 퍼레이드. 삼바 무용수들이 퍼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삼바드로모' 거리는 총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삼바 퍼레이드에서 한 그룹마다 삼바 춤을 추는 사람만 약 4,000명에 이른다. 해마다 리우 카니발이 열릴 때면 전 세계에서 약 6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브라질 내 관광객도 25만여 명에 이른다.



싱가포르 에어쇼

2012.02.14 - 02.19 / 싱가포르 싱가포르
www.singaporeairshow.com.sg

삿포로 눈축제

2012.02.06 - 02.12 /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www.snowfes.com/K

니스 카니발

2012.02.17 - 03.04 / 프랑스 니스
www.nicecarnaval.com

호주 패션 박람회

2012.02.12 - 02.14 / 호주 시드니
www.fashionexposed.com

03 March



CeBIT 하노버 국제 정보통신 박람회
CeBIT 2012

2012.03.06 - 03.10
독일 하노버
www.cebit.de

CeBIT은 세계 최대 정보 통신 기술 박람회로, 전시회, 컨퍼런스, 기조연설, 기업 비즈니스 및 국가간 교류 협력 행사 등 다양한 분야를 독특하게 결합시킨 디지털 산업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 중 하나이다. 69개국에 참여하며 일반인도 관람 가능하다.



스위스 바젤 시계 보석 박람회
Baselworld

2012.03.08 - 03.15
스위스 바젤
www.baselworld.com

세계 최대 규모의 시계 보석 국제 전시회 '바젤 월드'에서 보석, 시계, 정밀 귀금속 제품 분야의 2,000여 종의 브랜드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하며, 그 규모가 매우 커서 모두 구경하려면 하루만으로는 모자랄 정도다.



서울시향 정기공연 - 비르투오소 시리즈
2012.01.13 20:00, 03.23 20:00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www.seoulphil.or.kr

파리 도서 박람회

2012.03.16 - 03.19 / 프랑스 파리
www.salondulivreparis.com

이탈리아 베로나 와인 박람회

2012.03.25 - 03.28 / 이탈리아 베로나
www.vinitaly.com/EN

04 April



이탈리아 밀라노 현대예술 박람회
MiArt

2012.04.13 - 04.15
이탈리아 밀라노
www.miaart.it/EN

Milano의 약자 Mi와 Art의 합성어로 지어진 이름 MiArt는 예술 애호가, 갤러리, 아티스트들을 위한 국제 규모의 현대 예술 시장이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일본, 멕시코, 중국 등 다양한 나라가 참여하며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들로 가득하다.



퀼른 국제 예술 전시회
2012.04.18 - 04.22 / 독일 퀼른
www.artcologne.de

독일 프랑크푸르트 건축 조명 전시회

2012.04.15 - 04.20 / 독일 프랑크푸르트
light-building.messefrankfurt.com

독일 하노버 산업 전시회

2012.04.23 - 04.27 / 독일 하노버
www.hannovermesse.de

발렌타인만의 깊은 매력을 음미할 수 있는 곳

有 BAR 유바

전국에서 발렌타인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곳. 맛과 분위기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까지 발렌타인을 가장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곳. 강남의 선릉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유 바(有 bar)'는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하는 곳이다.

겉으로 봤을 때 그리 화려하거나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이곳은 막상 안으로 들어서면 그윽한 향기와 격조 높은 발렌타인의 무드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다. 골드 컬러를 메인으로 레드 포인트를 준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과 편안하고 안락한 시트, 은은한 음악이 발렌타인의 깊이감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이곳을 찾는 이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주로 조용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하는 점잖은 40대들이 많이 찾는다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발렌타인의 무드는 실제로 발렌타인 애호가인 '유 바'의 변상고 대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십여 년 전 친구와 우연히 마신 이후 그 매력에 반해 지금까지도 위스키 하면 발렌타인부터 찾는다는 변 대표는 사람들이 발렌타인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일단 맛이 좋고 뒤끝도 없는 좋은 술이니까."라는 시원한 대답과 함께 "손님들이 발렌타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한 것들이예요. 하지만 그 단순한 조건을 모두 갖춘 술은 많지 않으니 다들 열광할 수밖에요."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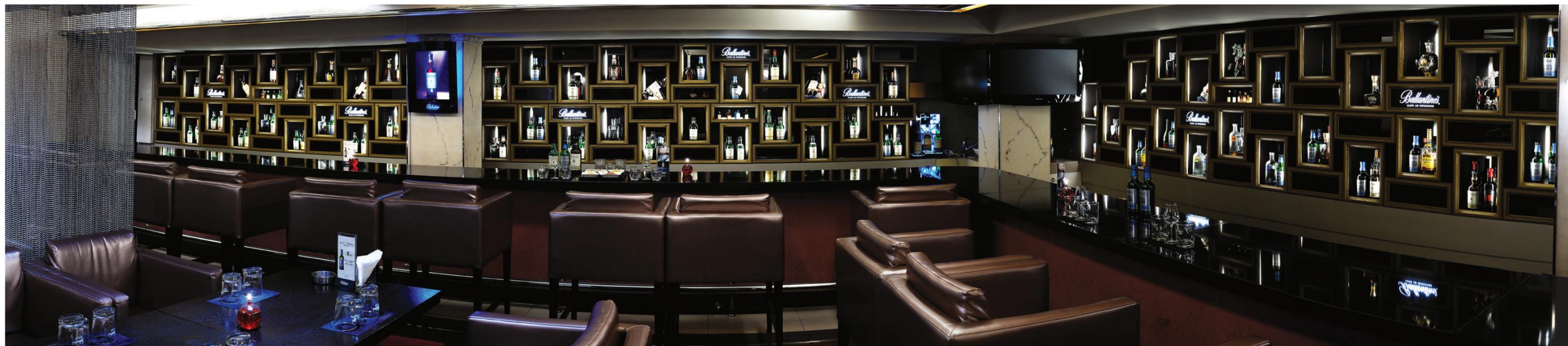
하루 평균 발렌타인이 7~8병씩은 나가는 '유 바'를 찾는 손님 중 상당수가 오직 발렌타인만 고집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일단 다른 곳보다 발렌타인의 가격이 저렴하고 기분 좋게 발렌타인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렌타인만으로 구성된 세트 메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최근 출시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세트 메뉴로 내놓은 변 대표는 아내나 친구들과 함께 발렌타인을 자주 즐기는 편인데, 아내가 특히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의 맛과 향을 좋아한다며 그 감상을 말했다.



“유 바는 앞으로도 가장 발렌타인다운 공간으로서 존재했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을 시음해 봤는데, 예감이 아주 좋아요. 맛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풍기는 그 과일 향이 이전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확 바뀐 건 아니지만 뭔가 다르다는 걸 바로 느끼게 하더군요. 오시는 손님들께도 예전 발렌타인 제품과 비교 시음을 해 보라며 한 잔씩 내놓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손님들의 반응도 아주 좋아요. 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잘 나가고 있어요.”

| 有 bar 유바 | 주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7-26 2층 전화번호 02-558-1182 운영시간 6:30 pm ~ 2:30 am



매거진 발렌타인은 품격 높은 테이스트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한 프리미어 블렌딩 오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입니다. 발렌타인만의 고유한 헤리티지 및 브랜드 뉴스와 함께 하이클래스를 위한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양질의 콘텐츠만을 전달합니다.

제호
발렌타인

발행일
January 31, 2012

발행처
페르노리카 코리아 발렌타인 마케팅팀

주소
137-8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8-3 나라빌딩 21층
www.pernod-ricard-korea.com
www.discoverB17scapa.com

Planning & Design
(주)헤즈 www.heaz.co.kr

Edit
카야프렌즈

Photographer
박중하



<발렌타인 매거진>에 실린 글, 그림, 사진은 발행사인 페르노리카 코리아에 저작권이 있으며,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 불가능합니다. <발렌타인 매거진> 구독 문의 및 안내 02-3466-5700

